

卽身成佛과 중생제도의 원리로서의 三摩地와 三密加持神變

종석(전동혁)

[국문 초록]

밀교의 兩部大經의 經名은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과 『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이다. 곧 이들 양부대경의 經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밀교는 三昧・加持・瑜伽・神變 그리고 成佛이 중심 키워드이다. 곧 밀교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기초로 해서 밀교의 최대 특징으로서, 밀교 이전의 불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발상,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을 가지고今生에서 성불할 수 있다는 소위 卽身成佛(現證)이라는 주장을 펴던 것이다.

‘卽身成佛과 중생제도의 원리로서의 三摩地와 三密加持神變’이란 논제를 지닌 본고는 三昧加持・瑜伽・神變이라는 키워드들의 종합 이론인 三密瑜伽行, 이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착안하여 삼밀유가행의 구체적 내용인 三摩地와 瑜伽(加持)와 神變이 상호 어떠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또 금강계만다라의 핵심 멤버인 37尊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다라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말하자면 그들의 출현(생)이 이들 三摩地・瑜伽(加持)・神變과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가진다면 어떤 콘셉트 속에서 어떻게 가지는 것인지? 또 우주의 주인으로 만생명의 에너지 근원이자 질료인으로 밀교의 敎主되시는 法界體性智의 당체인 法身大日如來 그 분의 정체는 무엇이며, 우리들 중생은 과연 佛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成佛의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성불하는 것인지를 밀교의

兩部大經으로서 瑜伽經典인 『大日經』·『金剛頂經』과 이들과 관계되는 經軌들, 그리고 이 경계들의 도상적 표현인 金剛界曼荼羅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三摩地와 瑜伽(加持)와 神變이란 개념은 卽身成佛을 부르짖는 밀교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法身毘盧遮那佛과 중생을 비롯한 만 생명을 연결해주는 架橋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강계만다라의 중심 멤버인 37尊의 구성원도 모두가 이들과의 관계를 거쳐 탄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곧 이들 37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중생을 사랑하시는 大悲者 如來께서 중생과의 연결을 위해 시설해 놓으신 三摩地와 瑜伽(加持)·神變을 통해 출생된 如來의 분신들로서, 이들을 加持身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들이 모두 加持를 통해 탄생되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 개념들이 여래와 중생을 연결해주는 三密瑜伽行의 구체적 내용인 것도 알게 되었다. 곧 중생을 사랑하시는 여래의 大悲心和 중생이 자기의 본래 본향인 여래에게 회귀하려는 간절한 열망인 菩提心, 이 둘을 하나되게 하는 架橋로서의 妙門이 다름 아닌 如來와 衆生の 身口意 三密의 상호 瑜伽行인 三密瑜伽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加持 개념은 거론했던 『法華經』의 32應화와 功德修行的 결과로 現一切色身三昧을 얻은 妙音菩薩의 이야기, 淨土經典의 往生 원리인 如來의 本願(pūrva-pranidhāna)과 行者의 功德修行(發菩提心·修行)의 관계, 『華嚴經』에서의 법신불의 願行과 그 결과로서의 蓮華藏世界의 建設過程 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생세계의 삶의 터전인 緣起法界의 근간을 이루는 키워드로서 밀교경전을 비롯한 『무량수경』이나 『화엄경』과 『법화경』 등의 대승경전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기본 개념이자, 正等覺의 성취와 神變을 이루게 하는 매카니즘으로 莊嚴(淨土·蓮華·密嚴)의 근간이 됨도 알 수 있었다.

곧 成佛이나 往生이란 것은 三業莊嚴이 三密莊嚴으로, 衆生世界가 佛世界로, 衆生莊嚴이 佛莊嚴으로 탈바꿈(神變)했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나의 身口意 三業이 如來의 身口意 三密로 거듭나 새롭게 莊嚴되었다는 뜻으로, <三密加持>나 <入我我入>이 의미하는 것처럼, 중생의 三業과 여래의 三密이 상호 瑜伽·加持하고 相卽相入해서, 나는 如來의 세계에 들어가고 如來는 나에게 들어와, 그 결과로 나의 三業이 본래의 如來의 三密에 相卽相入하여 상응한 경지, 곧 내가 여래와 <二而一>이 된 경지를 의미한다. 法身佛의 진정한 가르침을 설하는 밀교의 가르침은 중생들로 하여금 化身에 귀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衆生 본래의 모습인 自性清淨身으로 귀의하게 하는 妙道의 가르침인 것이다. 곧 法身과 化身(加持身)과 衆生の 相互出生과 相互供養 관계를 보이고 있는 『금강정경』이나 三密平等加持의 三句法門과 나와 여래와 중생의 三力加持法門을 설하는 『대일경』이 보여주듯, 法身佛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化身(加持身)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생들로 하여금 本人의 自性 속에 本具되어 있는 佛性을 알게 하기 위한 것, 바꾸어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自性法身에 환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곧 法身으로부터 化身에게로, 화신으로부터 衆生에게로, 중생으로부터 法身에게로 환원시키기 위한 方便일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해 佛의 궁극적 목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化身佛에 귀의하게 하는 祈福의 신앙이 아니라, 중생들 스스로 자신의 本來面目을 알아 이를 밝히고 밝혀 성불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三密加持의 원리가 사바 중생 모두에 순환되어 그들의 本郷인 淸淨三密에 歸還되는 것이 다른 아닌 일체 중생의 成佛이자 三密로 장엄된 불국토 密嚴世界의 건설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方便法 중 최고의 수행법으로 개발된 것이 三密瑜伽를 근간으로 하는 阿字觀과 月輪觀과 五相成身觀과 入曼荼羅行 등의 妙道, 곧 밀교의 三摩地修行法인 것이다. 말하자면 佛과 衆生의 간격에서 오는 一抹의 無明을 卽時(身)에 그것도 완전히 제거하게 하는 최고의 방편 수행법이 三摩地法인 三密瑜伽行임을 밀교는 闡明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密敎, 兩部大經, 三摩地, 瑜伽, 加持, 三密加持(行), 加持受用身, 神變, 卽身成佛, 如實知自心, 三句法門, 三平等句, 白月觀, 金剛界曼荼羅.

1. 문제의 所在

석존불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自燈明 法燈明이다. 곧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진리 자체인 法性和 그 법성을 각자의 본성으로 하는 소우주 自身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말하자면 우주 진리인 법성을 여실히 관찰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으로서 그것의 완성자를 일러 覺者인 佛이라 한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역사는 原始佛敎 → 部派佛敎 → 大乘佛敎 → 密敎로 이어 내려왔다. 인도불교의 마지막을 장식한 불교, 그것이 밀교이기에 밀교수행자들은 밀교의 敎理와 實踐法에 그 이전의 불교교리와 실천행법들, 그리고 여기에 인도교유의 종교인 힌두교적 요소들 가운데 수승한 것들을 수용한 후 이들을 종합·응용·개선하여 밀교 나

름의 독특한 이론과 수행체계를 구축하였다.

불교는 일찍부터 우주와 현상계의 本體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體相用 三大이론을 제시하였다. 곧 우주의 모든 존재나 현상들은 백이 먼 백 모두가 각자만의 고유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생긴대로 논다”는 속담처럼, 모든 존재는 한결같이 자기만의 독자적 작용이나 쓰임새를 지니고 있는데, 불교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이나 존재들의 實相을 설명하기 위해 體相用 三大이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인도불교의 마지막을 장식한 밀교는 이러한 삼대이론을 수용하면서 도(相大와 用大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의 불교와는 달리) 三密瑜伽라는 독창적 입장에서 三密用大說이란 이론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삼밀용대설이란 신구의의 행동이야말로 만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이자,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근본이 됨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말하자면 身口意 行爲 하나하나의 결과에 의해 形色은 물론 그것이 지니는 에너지(用) 또한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평상시의 일거수일투족의 三密行이야말로 나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만들어 내는 動力因이며 質料因이라는 이론이다.

한편 밀교만이 지녔다는 삼밀유가행이란 삼밀용대설의 중심이론이자 그에 따른 行法으로서, 손(手)에는 印을 結하고, 입(口)으로는 眞言을 지송하며, 마음(心)은 우주심인 三摩地(나 즉시 大日如來)에 머무는 것인데, 이러한 삼밀을 동시에 行하게 되면 현재의 육신으로 佛身을 증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밀교의 기본 입장이다. 곧 밀교에서는 삼밀유가행의 다른 표현으로 三密加持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가지란 더한다는 뜻으로, 불·보살님과 삼밀을 가지하게 되면 불·보살님이 지닌 모든 신구의의 덕성과 공덕이 수행자에게 옮겨져, 수행자의 신구의가 그대로 불·보살의 신구의 삼밀이 된다는 소위 入我我入의 이론이다. 곧 손으로 結印한다는 의미인 手印(身印), 여기서 印이

란 밀교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行法으로서 決定과 불·보살의 誓願이란 뜻을 의미하는데,¹⁾ 이 결인에 의해 行者는 중생제도라는 불보살의 서원에 加持·契合하게 되어 결정코 불·보살과 合一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를 일러 身密瑜伽(加持)라 하는 것이다. 또한 口密瑜伽(加持)란 法身인 대일여래의 眞實語인 眞言(dhāraṇī)을 지심으로 지송하면 법신의 진실어가 행자에게 가지되어 불보살과 똑같은 무량의 공덕과 진실어를 지니게 되는 神變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며, 또 마음속으로 우주와 불보살의 法性(自性)인 空性和 慈悲觀을 관하게 되면, 공성과 자비라는 宇宙法性이 그대로 행자에게 가지되어 法性和 契合되는 신변을 얻게 된다는 원리로서, 이를 일러 意密瑜伽(加持)라 하는 것이다.

『菩提心論』의 언급처럼,²⁾ 밀교는 이러한 삼밀유가를 기본으로 하는

- 1) 印(mudrā)이란 <決定짓는다>는 뜻이다. 곧 모든 障礙를 除去하여 자신을 淨化시키겠다는 願力을 세움과 동시 무량한 功德을 성취한 聖衆들을 불러 請하여 自身의 不退轉의 확고부동한 意志를 刻印시키기 위해 그 聖衆들과 인연을 맺어 加持相應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왼손은 중생들의 願力이나 祈願을 나타내고, 오른손은 무량공덕을 지닌 諸佛의 三昧耶印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諸佛의 意志와 약속이 담겨있음을 나타낸다. 印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 四種曼荼羅의 四種印과 曼荼羅上의 五佛이 취하고 있는 五智印이 가장 보편적이다. 곧 十方三世諸佛의 모습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大曼荼羅의 大智印, 諸佛菩薩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나 손가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三昧耶曼荼羅의 三昧耶智印, 諸佛菩薩의 德을 나타내기 위해 言語나 文字형태를 취하고 있는 法曼荼羅의 法智印, 諸佛菩薩들의 活動이나 作用을 표현해 놓은 羯磨曼荼羅의 羯磨智印이 四種印이며, 또 金剛界曼荼羅上에서의 中央의 主佛 法身毗盧遮那불이 취하고 있는 智拳印을 비롯하여 東方의 阿閼佛이 취하고 있는 降魔觸地印, 南方의 寶生佛이 취하고 있는 與願印, 西方의 阿彌陀佛이 취하고 있는 禪定印, 北方의 不空成佛이 취하고 있는 施無畏印 등의 五智印이 그것이다. 印契(mudrā)를 최초로 설하고 있는 경전은 『牟梨曼荼羅呪經』으로 19개의 印이 설해지고 있다(『大正藏』 권20, p.661). 그러나 『陀羅尼集經』에 오면 무려 300여 개의 印이 설해지고 있다(『大正藏』 권18, p.785). 『대일경소』의 “今此中先說十二種合掌名相”(『大正藏』 권39, pp.714c-715)언급처럼, 수많은 印契는 <十二合掌>과 <六種の 拳>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 2) 『菩提心論』(『大正藏』 32, p.572c), “諸佛菩薩이 그 옛날 因地에서 마음을 發해 마친 후에 勝義菩提心和 行願菩提心和 三摩地菩提心 이 세 가지 (菩提心)을 戒로 삼고 成佛하실 때까지 잠시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직 眞言法 중에만 卽身成佛을

三摩地修行法을 개발해서 卽身成佛이라고 하는 밀교만의 독특한 성불 이론을 주창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三密瑜伽, 말하자면 三摩地・加持(瑜伽)와 神變으로 이루어진 瑜伽 理論에 의해 성립된 것이 밀교세계의 축소판인 만다라이다. 따라서 삼밀유가행법이야말로 밀교성립(교리와 실천행)의 근간으로서 밀교를 밀교답게 곧 일반 불교와 다른 밀교만의 특색으로서 자리잡게 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밀교가 지니는 기본 입장 중의 하나에 卽事而眞이란 덕목이 있고, 또 밀교가 지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현실중시이듯이, 밀교는 현실세계 밖에 별도로 淨土를 인정하거나 또 구하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의 정신 내지 물질의 삶을 극대화시키며 현실의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곧 小宇宙인 현실세계는 대우주인 신비세계의 한 방면으로서 우주의 主人이신 大日如來의 표현이기에 그 무엇 하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밀교에서는 이것을 善巧方便으로 잘 활용하여 각자 각자가 지니는 효용을 극대화시켜 增益・息災・調伏・敬愛 등의 世間成就를 이루게 함은 물론 發菩提心에의 資糧 내지는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활용하면서 出世間成就를 速疾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간・출세간의 성취를 속히 이루게 하는 기본 원리로서 加持란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加持(Adhiṣṭhāna)란 加被 受持하는 것으로 感應道交란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念力으로 중생에게 어떤 힘을 가하는 것이 가이며, 중생은 이 힘을 잃지 않고 단단히 把執하여 受持하는 것이 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발신기와 수신기가 서로 감응해야 가능하듯이, 가지 역시 이와 같이 상호

주장하는 연고로 三摩地法을 설하고, 다른 敎에서는 (三劫成佛을 주장하므로 三摩地法)은 빠뜨려 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감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지감응에 있어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다른 아닌 觀念의 힘이다. 곧 관념이란 불가사의한 것으로 마음속에 念한 것을 그대로 현실 속에 現出시키거나 변형된 제3의 어떤 힘을 지니게 하여, 본인은 물론 제2, 제3의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육체적)으로 그 모습을 力化시키거나 印現시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Yoga-sūtra*에서 보듯이, 인도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yoga란 개념을 활용하여 祈雨·延命·治癒 등의 소위 신비주의 사상을 개발하였다. 불교 역시 이러한 토양에서 생성된 종교이기에 당연히 이러한 영향 하에 원시불교 이래 정신통일 내지는 신통력 체득의 방법으로 三昧와 止觀 그리고 유가(yoga)와 같은 行法을 수용·발전시켜 왔다.

인도불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세간성취는 물론 출세간의 성취 그것도 즉신성불(今生成佛)을 목적으로 삼은 밀교는 밀교 이전의 삼매·지관·yoga란 개념들을 더욱 발전시켜가면서 종합적 유가행이라 할 삼밀유가행이란 밀교만의 독특한 선교방편을 개발하여 그들의 목적달성에 활용하였다.³⁾

‘即身成佛과 중생제도의 원리로서의 三摩地와 三密加持神變’이란 논제를 지닌 본고는 삼밀유가행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에 착안하여, 삼밀유가행의 구체적 내용인 삼마지와 유가(가지)와 신변이 상호 어떠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를 밀교의 兩部大經으로서 유가경전인 『大日經』과 『金剛頂經』 그리고 금강정경계의 경계

3) 밀교 이전의 불교인 顯敎 역시 나름대로의 瑜伽行法을 가지고 수행법으로 活用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밀교의 三密瑜伽行처럼 종합적·합리적·총체적이지 못하고, 三密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해 사용하였다. 곧 淨土宗의 念佛修行은 口密을, 禪宗의 참선 수행은 意密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도불교의 마지막을 장식한 밀교는 이러한 밀교 이전의 수행법들을 분석·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들, 특히 『금강정경』의 도상적 표현으로서 37尊이 중심이 되는 金剛界 曼荼羅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곧 이들 금강계만다라의 37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다라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그 출현과정을 삼마지와 유가(가지)와 신변의 틀 속에서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이 틀을 통해 우주의 주인으로 만생명의 에너지 근원이자 질료인으로 밀교의 교주되는 法界體性智의 당체인 법신 대일여래의 體性과 나아가 중생이 佛로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중생세계가 불세계(밀엄세계)로 전환되는 전 과정의 매카니즘을 살펴보려 한다.

II. 밀교의 兩部大經은 三昧・瑜伽・加持・神變의 經典

한때 세계의 극장가를 주름잡으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영화가 있었다. 소위 分身과 化身 개념을 빌려온 ‘아바타(avatar)’라는 영화와 남의 꿈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훔쳐내거나 반대로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인셉션(inception)’이라는 영화가 그것이다. 아바타(avatar)란 말은 分身・化身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avatara’에서 유래한 말로, ‘내려오다(下降・下生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avatara의 명사형인 ava와 ‘地上(땅)’을 의미하는 ‘terr’의 합성어이다. 곧 고대 인도에서는 지상으로 내려온 화신을 아바타라고 하였던 것이다.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MB(이명박 대통령)의 분신격으로 世宗市와 四大江을 정부안대로 이끌고 갈 임무를 띠며 정가에 발을 들여 놓았다 물러난 바 있는 어느 국무총리를 일러 ‘MB 아바타’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분신과 화신의 개념을 도입해 히트시킨 아바타 열풍에서 유래된 유행어이다.

한편 Inception이란 영화는 하나의 중심 생각을 누군가의 無意識에

심어 뿌리내리게 하는 것으로, 남의 생각을 빼내거나(extraction), 또 내 생각을 남의 무의식에 주입시킨다(inception)는 개념으로서, 삼매에 들게 하는 기계(드림머신)를 이용하여 타인의 꿈과 접촉해 생각을 빼내거나 주입시킨다는 줄거리이다. 비록 이들 두 개념이 방법은 조금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내 뜻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과 똑같은 몸을 나투는 (분신·화신)의 개념과 三昧를 통해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그와 내가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소위 요가(yoga)와 加持의 개념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두 개념은 불교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분신과 화신, 그리고 삼매·瑜伽·가지라는 개념을 이슈화한 것이다.

『法華經』의 『묘음보살품』에는 (淸)淨光莊嚴國이라는 淨土에 사는 妙音菩薩이라는 수행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곧 묘음보살이 성불과 중생제도의 발원을 세우고 무수겁동안 무량의 부처님들에게 禮拜·供養·親近하면서 수많은 공덕행을 닦아, 그 결과 지혜와 <現一切色身三昧>를 얻어 사바에 몸을 나투어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줄거리이다. 다시 말하면 묘음보살은 수행의 공덕으로 처처에 중종신을 나타내는 『普門品』의 32응화신이나 영화 <trans-former>에서 보는 것처럼, 몸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저렇게 變身시킬 수 있는 현일체색신삼매를 얻게 되었고, 이 삼매를 이용하여 사바에 몸을 나투어[下降]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고 다시 본처인 정토에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서로움을 얻게 되었느냐”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 “제가 지금 娑婆世界에 갈 수 있는 것은 여래의 가지력과神通력, 그리고 여래공덕과 여래지혜와 여래장엄의 덕분이다”라고 한 묘음보살의 답변과, 또 석존불의 “묘음보살이 처처에 중종신을 나타내는 소위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성불과 중생제도를 발원한 후 미진수겁 동안 수많은 부처님들을 예배·공양·친근하며 공

덕행을 닦은 공덕 때문이며, 그 삼매의 힘으로 이곳 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친견하고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상서로움이 나타난 것”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이다.⁴⁾

밀교의 대표 경전으로서 즉신성불을 목표로 하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본래 經名은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과 『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⁵⁾이다. 경명에서 보듯 이들 경전들은 모두가 삼매와 유가(yoga)와 가지·신변을 기본으로 하는 경전들로서, 이것만 보아도 즉신성불을 부르짖는 밀교의 근본적 실천 이념이 신구의 삼밀유가를 통한 가지와 그 결과로서의 변화자재의 신변을 얻어 즉신에 성불을 현증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金剛頂經系의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略述金剛頂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 『金剛頂瑜伽十八會旨歸』, 『金剛頂瑜伽三十七尊心要』, 『金剛頂瑜伽三十七尊出生義』 등의 經軌들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유가의 정통경계들인 것이다. 말하자면 우주 진리인 법신 비로자나불과의 삼매와 유가가지에 의해 신변을 얻어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으로 성불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 이들 밀교경전의 전체 골격이자 concept이었던 것이다.⁶⁾

4) 『法華經』(『大正藏』 9, pp.55a-56b)

5) 宋朝의 施護 스님이 번역한 『금강정경』의 경명은 『佛說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이다. 不空三藏 번역의 『佛說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教王經』에는 三昧란 단어가 추가로 부가되어 있다.

6) 참고로 『대일경소』에 등장하는 加持와 관계되는 단어를 열거·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加持+接尾語의 形態: 加持(身, 成佛, 自身法, 門說, 丈, 香水, 禮, 供物, 念誦, 世界) / ② 接頭語+加持의 形態: (三密, 三寶, 神變, 土砂, 五處, 牛黃, 二種, 三種, 散杖, 法界, 護身, 神力)加持 / ③ 券別 登場回數:

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登場回數	43	2	13	32	26	12	26	33	19	7	19	10	19	20	23	10	2	11	17	10

Ⅲ. 三密瑜伽(加持) 修行者, 密教行者

『대일경』의 제1품인 『入眞言門住心品』에는

소위 삼세를 뛰어넘는 여래의 태양이 가지함으로 인해 身口意 平等法門
이 성립되었다.⁷⁾

라 하여, 중생의 신구의 三平等의 법문이 여래의 가지에 의해 비로
소 성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석서인 『대일경소』는

중생으로부터 부처를 이르기 위해서는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오직
자신의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入眞言門住心品이라 한 것이다.
진언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세 가지 妙門이 있으니 첫째는 身密門, 둘
째는 語密門, 셋째는 心密門이다. 수행자는 이 세 가지 방편에 의해 스스
로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다. 곧 여래의 삼밀에 가지되어 今生에 능히
十波羅蜜을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것인데, 그 까닭은 이 방편법이 모든
수행법을 대치하기 때문이다.⁸⁾

곧 여래의 신구의 삼밀은 오직 부처님들만이 능히 아는 것으로 미륵보살
등의 다른 보살들은 역량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신통을 알 수 없는 것이
다. 그래서 비밀 가운데 최고의 비밀이라 한 것이다.⁹⁾

④ 全體回數:1) 本文(권1-권20): 364회, 2) 供養次第法疏: 40회로 총 404회 등장한다.

7) “所謂越三時如來之日加持故 身語意平等句法門”(『大正藏』 18, p.1a)

8) “從因至果 皆以無所住而住其心 故曰入眞言門住心品也 入眞言門略有三事 一者身密門 二者語密門 三者心密門 是事下當廣說 行者以此三方便 自淨三業 卽爲如來三密之所加持 乃至能於此生 滿足地波羅蜜 不復經歷劫數 備修諸對治行”(『大正藏』 39, p.579b-c)

9) “卽是如來身語意密 唯佛與佛乃能知之 乃至彌勒菩薩等 猶於如是祕密神通 力所不及 祕中最祕”(『大正藏』 39, p.582a)

라 하여, 成佛原理의 근거가 如實하게 自心을 알고 그것에 安住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이것에 속히 들어가는 방법으로 삼밀가지라고 하는 妙門, 곧 여래의 삼밀에 가지되기 때문에 모든 수행법을 대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생에 십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는 三方便門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삼밀평등의 묘문인 가지의 설법은 부처님만이 아시는 秘中の 最秘로서 중생성불의 근거로서 여래께서 대비로부터 施設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三平等處에 머무는 까닭에 句라 하는 것이다. 곧 신구의가 평등한 비밀가지를 所入의 門으로 삼는 것이다. 곧 身평등의 密印, 語평등의 眞言, 心평등의 妙觀으로서 방편을 삼는 까닭에 加持受用身을 얻게 되는 것이다.¹⁰⁾

悉地를 얻는 불가사의한 신변도 이와 같은 것이다. 곧 오로지 眞言과 觀本尊과 身印등의 인연에 의해 실지가 얻어지는 것이다. 곧 진언을 지송하는 까닭에 구업이 청정해 지고, 본존을 관하는 까닭에 의업이 청정해지고, 結印에 의해 신업이 청정해지는 것이다. 곧 三事が 평등한 까닭에 이러한 불가사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¹¹⁾

眞實이란 스스로 진언을 지송하고 손에 印을 맺고 本尊을 觀하는 것을 말한다. 곧 이렇게 전념하는 까닭에 본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존이란 진실의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본존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실하게 나의 몸이 본존과 동일하다는 것까지도 보는 것으로 그래서 진실이라 하는 것이다. 진실에 계합하는 세 가지 평등방편이 있으니, 몸은 곧 印이요, 말은 곧 眞言이요, 마음은 곧 本尊이라고 확신하는

10) “得住三平等處 故名爲句 卽以平等身口意祕密加持 爲所入門 謂以身平等之密印 語平等之眞言 心平等之妙觀 爲方便故 逮見加持受用身”(『大正藏』 39, p.583a)

11) “今悉地不思議神變亦如是 但猶眞言觀本尊及身印等緣而成悉地 由眞言故口業淨 觀本尊故意業淨 印故身業淨 三事平等故自然而有不思議業”(『大正藏』 39, p.739b)

것이다. 곧 세 가지 면에서 나와 一切如來가 평등하여 하나도 다름이 없기에 그래서 진실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이것을 수행한다면 결정코 부처님의 會座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¹²⁾

라 하여, 밀교는 나의 신구의가 여래의 그것과 평등하다는 소위 如實知自心에 住하는 가르침으로, 이러한 가르침에 들어가기 위해 부처님께서 대비방편으로 시설한 묘문이 신평등의 密印, 어평등의 眞言, 신평등의 妙觀으로 구성된 삼밀유가행임을 밝히고 있다. 곧 삼밀유가행은 나의 신구의가 여래와 동등함을 보게 하는 진실법이자 불가사의를 낳게 하는 신변의 가르침이기에 수행하면 누구든지 즉신에 불신을 얻는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또 양부대경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핵심만을 골라 菩提心の 觀行에 대한 修行儀, 곧 瑜伽와 摠持(다라니)에 대한 종합적 논서인¹³⁾ 『菩提心論』에는

삼밀유가 수행자인 上根上智의 사람 있어 외도와 二乘法을 즐기지 않고 큰 도량(대비심)과 智慧勇의 三德을 갖춘 大忿心으로 대승에 대해 의혹이 없는 자는 마땅히 佛乘(진언행)을 닦되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나 지금 무상정등정각만을 구하고 나머지 fruits는 구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에 이러한 뜻을 서원한 까닭에 魔宮이 진동하고 시방 제불이 모두 證知하시는 것이다.¹⁴⁾

12) “自眞實謂自持眞言手印想於本尊 以專念故能見本尊 本尊者卽是眞實之理也 非但見本尊而已 又如實觀我之身卽同本尊 故名眞實也 此有三平等之方便 身卽印也 語卽眞言也 心卽本尊也 此三事觀其眞實究竟皆等我 此三平等與一切如來三平等無異 是故眞實也 行者修行時 佛海大會決定信得入”(『大正藏』 39, p.752b)

13) 『菩提心論』은 副題로 “瑜伽總持釋門說菩提心觀行修行儀”(『大正藏』 32, p.572b)라 하고 있다.

14) “若有上根上智之人 不樂外道二乘法 有大度量 勇銳無惑者 宜修佛乘 當發如是心 我今志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求餘果 誓心決定故 魔宮震動 十方諸佛皆悉證知”(『大正藏』 32, p.572b)

이제 眞言行人은 앞에서와 같이 관찰해 마친 다음에는 다시 중생계의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야한다. 이와 같은 발심은 대비로서 결정한 것이기에 영원히 외도와 이승의 경계를 뛰어 넘는 것이다. 또한 유가의 수승한 법을 닦는 (眞言行)자는 능히 凡으로부터 佛位에 들어가는 자이기에 십지보살의 경계 또한 뛰어 넘게 되는 것이다.¹⁵⁾

만일 유가 중에서 모든 보살신을 이루고자 발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일러 발보리심(자)이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尊들은 한결같이 모두 大毘盧遮那佛身과 동등하기 때문이다.¹⁶⁾

라 하여, 밀교행자를 三密이라고 하는 수승한 법을 닦는 유가수행자, 곧 무상정등정각만을 구하는 上根上智者라 정의하며, 그 이유를 밀교행자는 중생의 이락을 갈구하면서 여래와 가지를 하는 삼밀유가행자이기 때문에 卽身에 십지보살의 경계를 뛰어넘어 대비로자나불신과 동등한 신변을 지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 “今眞言行人 如前觀已 復發利益安樂無餘衆生界一切衆生心 以大悲決定 永超外道二乘境界 復修瑜伽勝上法人 能從凡入佛位者 亦超十地菩薩境界”(『大正藏』 32, p.573a-b)

16) “若願成瑜伽中諸菩薩身者 亦名發菩提心 何者謂此諸尊 皆同大毘盧遮那佛身”(『大正藏』 32, p.572c)

Ⅳ. 密敎經軌에서의 三昧(三摩地) · 瑜伽(加持) · 神變의 構造

1. 『大日經』과 『金剛眞經』의 基本 構造

1) 『대일경』의 기본 구조

『대일경』의 핵심 키워드는 아래에 인용한 경문의 내용처럼, <三句法門>, <菩提爲如實知自心>, <心虛空菩提三種無異>, <本性清淨>과 경의 제목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加持 · 神變 · 成佛>이다. 먼저 위의 키워드들을 설하고 있는 경문부터 살펴보자. 경은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一切智智는 무엇을 因으로 하며, 무엇을 根으로 하며, 무엇을 究竟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략)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菩提心을 因으로, 悲를 根으로, 方便을 究竟으로 하는 것이다. 비밀주여! 무엇이 菩提인가 하면 여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다름 아닌 무상정등정각인 것이다. (중략) 세존이시여! 무엇이 一切智를 구하며, 무엇이 菩提인 정각을 이루는 것이며, 무엇이 이러한 일체지지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비밀주여! 自心에 보리와 일체지지를 구하는 것으로, 그 까닭은 자심의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중략) 비밀주여! 이처럼 心과 虛空과 菩提는 다른 것이 아닌 같은 것으로, 이 모두는 悲를 근본으로 하며 方便波羅蜜을 만족하는 것이다.”¹⁷⁾

17) “世尊如是智慧 以何爲因 云何爲根 云何究竟 (中略) 佛言菩提心爲因 悲爲根本 方便爲究竟 祕密主云何菩提 謂如實知自心 祕密主是阿耨多羅三藐三菩提 (中略) 世尊誰尋求一切智 誰爲菩提 成正覺者 誰發起彼一切智智 佛言祕密主 自心尋求菩提及一切智 何以故本性清淨故 (中略) 如是祕密主 心虛空界菩提三種無二 此等悲爲根本 方便波羅蜜滿足”(『大正藏』 18, p. 1b-c)

라 하여, 위에서 열거한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설하고 있다. 이제 이들 키워드들을 점검해 가면서 경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 <三句法門> :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일체지지는 무엇을 因으로 하며, 무엇을 根으로 하며, 무엇을 究竟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략)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菩提心を 因으로 悲를 根으로 方便을 究竟으로 하는 것이다.

② <菩提爲如實知自心> : 비밀주여! 무엇이 菩提인가 하면 여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다름 아닌 무상정등정각인 것이다.

③ <心虛空菩提三種無異> : 비밀주여! 이처럼 心和 虛空과 菩提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닌 똑같은 것으로, 이 모두는 悲를 근본으로 하며 方便波羅蜜을 만족하는 것이다.

④ <本性淸淨> : 비밀주여! 自心에 菩提와 一切智智를 구하는 것으로, 그 까닭은 自心の 本性이 淸淨하기 때문이다.

이상 『大日經』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이들 키워드들의 핵심은 ①의 <三句法門>으로서, 나머지의 키워드들은 모두가 이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곧 위의 4개의 키워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들 중생들의 모습은 온갖 번뇌망상으로 찌들어 있어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중생의 本性은 본래 淸淨한 것으로, 그것은 마치 虛空과 같이 청정성인 菩提 그 자체로서 절대로 변하거나 퇴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菩提心과 慈悲心を 가지고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상정등정각을 얻게 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곧 <加持・神變・成佛>이란 經題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일경』의 기본 구조는 大悲이신 부처님께서 사실을 여실하게 알지 못하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비심을 내어 중생과 加持하여 중생에게 이러한 사실을

自覺시키고 修行케 하는 것, 곧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과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중생을 이락하게 한다는 <三句法門：菩提心爲因 大悲爲根 方便爲究竟>과 그 공덕으로 神變을 얻어 끝내는 成佛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 다시 말하면 加持→自覺(自性淸淨)→修行→神變→成佛인 것이다.

2) 『금강정경』의 기본 구조

① 무상정등정각을 얻기 위해 붓다가야 菩提道場에서 無識身三昧(阿婆頗那伽三摩地)에 들어 있는 一切義成就菩薩(신달타)에게 法性身인 一切如來가 나타나 지금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무상정등정각을 얻지 못하니 어서 그만두라고 한다.¹⁸⁾ 이에

② 일체의성취보살이 무상정등정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수행법을 알려 달라고 간청한다.

③ 일체 여래가 <五相成身觀>이란 수행법을 알려주고, 일체의성취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성성신관>이란 새로운 수행법을 修行하여 마침내 佛身圓滿을 現證하여 金剛界大菩薩이 된다.

④ 金剛界大菩薩이 된 일체의성취보살은 자신이 現證한 불신원만을 확실히 하기 위해 一切如來께 加持를 청하고, 이에 一切如來가 金剛界

18) 阿婆頗那伽三摩地(*Aspānaka-Samādhi*: 無識身三昧로서, 無息身定無動定이라 하는 삼매의 일종이다. 안나만나(*anapāna*)는 入息과 出息의 뜻인데, 이 안나만나에 의한 수행이 *Aspānaka-Samādhi*라는 觀法이다. 『金剛頂經議決』에 의하면, ‘이 삼마지의 내용은 일체가 空임을 알게 하기 위해 개발된 삼매이긴 하나, 단지止의 세계에 머물 뿐 아직 觀의 세계에는 이르지 못한 경계이다. 곧 외도와 소승 그리고 漸學大乘이 이 定을 수행으로 삼지만, 외도는 갇지 못한 것이 흠이며, 소승은 이 삼매를 瞋境으로 삼고, 집학대승은 方便으로 삼는다. 곧 이 삼매는 숨이 갇지 못하고 거칠므로 佛果인 無上正等正覺을 얻는 데는 미약하기에 그래서 보완한 것이 오상성신관이다’라 하고 있다. (『大正藏』 39, pp.812c-813a)

大菩薩을 加持하니 그 찰나 金剛계대보살은 四智를 증득한다. 四智를 증득한 일체의성취보살이 곧 바로 色究竟天에서 수미산의 정상으로 내려와 四方으로 얼굴을 향하여 獅子座에 앉으니 이로서 金剛界如來인 法身毘盧遮那佛이 된다.

⑤ 金剛界如來는 일체 여래로부터 加持를 받아 獲得한 四智로부터 金剛界曼荼羅 四佛(阿閼佛, 寶生佛, 阿彌陀佛, 不空成就佛)을 出生시켜 동남서북의 四方에 安立시키니 이로서 金剛界曼荼羅 五佛이 存立하게 되는 것이다.

⑥ 한편 四方佛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추어 四方에 四菩薩을 出生시켜 安立시키니, 이들이 곧 十六大菩薩이다.

⑦ 四方佛들은 자신들을 出生시켜준 비로자나불에 대한 답례로서 四波羅蜜菩薩을 出生시켜 法身 毘盧遮那佛의 四方에 자리하게 하여 법신불을 侍奉, 供養케 한다.

법신 비로자나불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內四供養菩薩을 출생시켜 四佛을 供養하게 하고, 四佛은 또 다시 外四供養菩薩을 출생시켜 비로자나불에 보답하고, 비로자나불은 보답으로 또 다시 四攝菩薩을 출생시켜 四佛을 시봉하게 하니, 이들(四波羅蜜菩薩 · 內四供養菩薩 · 外四供養菩薩 · 四攝菩薩)이 곧 十六大供養菩薩이다.

⑧ 따라서 이들 五佛, 十六大菩薩, 十六大供養菩薩들을 합해보면 모두가 三十六尊이 되는 것으로, 이로서 소위 37존으로 구성된 金剛계만다라가 성립된 것이다.¹⁹⁾

19) 이와 같은 것이 金剛계만다라 37존 출생배경의 기본 구조가 되는 것이나, 37존 계통의 경계에 따라 조금씩 출생과정이 다르기도 한다. 이에 출생과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A. 智 → 定을 주장하는 經典郡 『金剛頂經』: 四佛(智) → 四波羅蜜菩薩(定)을 出生시킨. 『37尊出生義』: 大日如來(法界體性智) → 四佛의 智 → 四波羅蜜菩薩(定). 四佛(阿閼佛, 寶生佛, 阿彌陀佛, 不空成就佛) → 十六大菩薩을 출생시킨. 『菩提心論』:

① 四智의 合成智인 法界體性智 → 四佛을 流出시킨, ② 四佛의 智 → 四波羅蜜菩薩

이상 금강계만다라의 기본 구조, 말하자면 그 발상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금강계만다라는 기존의 수행법인 <아사파나가삼마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거리낌 없는 청산, 무상정등정각의 증득에 대한 열망, 우주 진리와 자신의 平等一如함에 대한 확신, 일체여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 곧 새 수행법인 오상성신관의 적극적 수용과 정진 수행 등의 일련의 과정이 전체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갈망하던 무상정등정각을 얻어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금강계여래가 된 후,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유가가지와 신변이라는 대자비의 묘문을 제시하여 四佛과 十六大菩薩 및 十六大供養菩薩 등의 三十六尊을 出生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전체적 구조와 만다라 구성원의 출생과정의 정립을 위해 三昧→三摩耶(誓願)→三摩地修行→瑜伽(加持)→神變→出生이라는 밀교 나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施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금강계만다라 37尊 成立의 原理

위에서 兩部大經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면의 관계상 양부대경 가운데 태장계만다라의 소의경전인 『대일경』은 제외하고,²⁰⁾ 특별히 金剛界曼荼羅의 소의경전인 『금

(定)(三世一切賢聖의 生成과 養育의 母)을 出生시킴, ③ 四佛(阿閼佛, 寶生佛, 阿彌陀佛, 不空成就佛)→十六大菩薩을 攝(流出)함.

B. 定→智를 주장하는 經典郡 『秘藏記』: 大日如來→四波羅蜜菩薩(定)→四智(智), 곧 四佛이 出生됨. 『秘藏寶鑰』: 四波羅蜜菩薩(定)→四智(智), 곧 四佛을 出生시킴.

C. 合成經典 『37尊心要』: ① 大日如來→四佛 / 十六大菩薩 / 內四供養菩薩 / 四攝菩薩, ② 四佛(智)→四波羅蜜菩薩(定) / 外四供養菩薩.

D. 大日如來로 통일한 經典郡 『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 大日如來(內心)→四波羅蜜菩薩을 비롯한 三十六尊을 모두 出生시킴.

20) 『大日經』에는 성불을 위한 修行法으로 五字嚴身觀과 阿字觀의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五字嚴身觀이란 우주 법신인 비로자나불

강정경』만을 택하여 금강계만다라의 구성원인 37존이란 존격들이 무슨 목적 하에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출생(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뒤이어 새로이 즉신성불 증득의 수행법으로 제시된 五相成身觀에 대해서 간략히 그 요점만을 살펴본 후, 본고의 중심 주제인 삼마지 · 유가(가지) · 신변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금강계삼십칠존 만다라를 설하고 있는 중요 경계들은 ① 不空三藏譯『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教王經』3권을 대표로 하는 다음과 같은 10종이다.²¹⁾

1) 金剛頂經系の 經軌에 보이는 出生(流出)의 과정과 그 목적

위에서 열거한 10종의 경계들 가운데 1차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①②③④⑤의 경계들을 고르고, 2차로 이들 각각의 경계들 가

과 행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體得케 하는 胎藏界觀法이다. 곧 우주의 質料因이며 動力因인 地(A) · 水(Va) · 火(Ra) · 風(Ha) · 空(Kha)의 五大(五字)를 우주를 장엄하는 하나의 존재인 小宇宙, 즉 자신에게 代置시켜 나=너=우주(대 일여래)를 체득케 하는 관법, 말 바꾸면 法界 안의 一切存在는 六大(兩部曼荼羅), 곧 물질적 요소인 地 · 水 · 火 · 風 · 空의 五大(태장계만다라)와 정신적 요소인 識大(금강계만다라)로 구성되어 있어 법신불인 대일여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임을 체득케 하는 관법이다. 이를 태면 밀교의 연기론인 六大緣起論을 觀法化한 것이 五字嚴身觀이며, 이를 구체화해서 五大를 수직으로 세워 탑을 만든 것이 五輪塔思想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阿字觀이란 阿(A)의 聲과 字, 그리고 實相을 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들 각자 속에 本具되어 있는 萬德을 體得해 나가기 위한 관법이다. 곧 本不生의 상징인 阿字와 淸淨般若空의 상징인 蓮華와 圓滿(淸淨, 淸涼, 光明)의 상징인 月輪을 통해 自心과 佛과 衆生の 平等性, 곧 수행자와 佛과 중생의 三位가 본래 一體임을 체득해 나가는 관법이다.

- 21) ② 施護譯『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30권, ③ 金剛智三藏譯『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4권, ④ 不空三藏譯不空三藏譯『略述金剛頂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1권, ⑤ 般若三藏譯『金剛頂瑜伽略述三十七尊心要』1권, ⑥ 不空三藏譯『金剛頂蓮華部心念誦儀軌』1권, ⑦ 不空三藏譯『諸佛經軌眞實攝經』3권, ⑧ 不空三藏譯『金剛頂瑜伽三十七尊禮』1권, ⑨ 不空三藏譯『金剛頂瑜伽三十七尊出生義』1권, ⑩ 不空三藏譯『金剛頂瑜伽金剛薩埵五秘密修行念誦儀軌』1권.

운데서 金剛薩埵菩薩의 出生을 설하는 문장을 찾아 분석해보니, 이들 중 ①②③의 경계들은 出生(所生)이란 단어를, ④⑤의 경계들은 流出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이들 경계들의 내용의 골자는 自身을 加持하기 위해 普賢菩薩의 三昧에 든 후, 다시 중생들을 利樂케 하기위해 三摩耶(서원)를 세운 후 加持身인 금강살타를 비롯한 제존들을 출생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出生의 중요한 원리 내지 비밀이 발견된다. 곧 상기 경계들이 가지는 구조(출생의 과정과 목적의 설명)는 37존 모두의 출생과정을 설명하면서 줄곧 전개되는 공통의 내용으로서, 이들 37존의 출생이 한결같이 삼매와 삼매야(서원) 내지는 삼마지 수행을 통한 여래와의 가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신변(출생)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생시키는 목적 또한 모두가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것이 소위 밀교경전이 지니는 기본 패러다임이자 특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三昧, 三昧耶, 三摩地修行, 瑜伽(加持), 神變, 出生이라는 諸概念들이 하나로 統合되어 이전의 대승불교 경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출생(유출)이란 개념이 창출하게 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출생의 비밀 내지 원리라 한 것은 다름 아닌 삼매, 삼매야, 삼마지수행, 유가(가지), 신변이 하나로 합쳐진 통합 개념으로서의 전 과정과 그 결과를 이야기했던 것이다.

곧 일체 여래가 자신과 일체 중생을 가지하기 위해 일체 여래의 마음인 삼매에 들어가 서원(三昧耶)을 세우고 金剛三摩地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 金剛光明(秘密法門)을 유출(출생)시킨다는 전 과정을 말했던 것이다. 잠시 경계들이 설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① 爾時世尊毘盧遮那如來(中略)於自身加持 卽入一切如來普賢摩訶菩提薩埵三昧耶 出生薩埵加持金剛三摩地 一切如來大乘現證三昧耶 名一

切如來心.(『大正藏』 18, p.208b)

② 爾時世尊大毘盧遮那如來(中略)爲一切如來自身加持故 卽入一切如來普賢大菩薩三昧 出生薩埵加持金剛三摩地 此名一切如來大乘現證三昧 卽一切如來心.(『大正藏』 18, p.342b-c)

③ 摩訶菩提薩埵三摩耶所生 名攝一切薩埵 名金剛加持 三摩地入已 此一切如來大乘阿毘三摩耶心 名一切如來心.(『大正藏』 18, p.227c); 爾時世尊毘盧遮那 復入不空王大菩薩三摩耶 出生加持薩埵金剛三摩地已 從自心而出 召請一切如來三摩耶 名一切如來心.(『大正藏』 18, p.228a-b)

④ 毘盧遮那佛於內心 證得金剛薩埵勇猛菩提心三摩地智 自受用故 從金剛薩埵勇猛菩提心三摩地智 流出五峰金剛光明 遍照十方世界 令一切衆生 頓證普賢行 還來收一體 爲令一切菩薩 受用三摩地智故 成金剛薩埵菩薩形 住阿閼如來前月輪.(『大正藏』 18, p.288c)

⑤ 住三摩地心 皆從毘盧遮那如來心內智中 流出無量無邊祕密法門 菩薩修行相應三昧 瑜伽理智滿法界心 此大菩提五智圓滿 卽毘盧遮那如來眞如法界智 處中位也.(『大正藏』 18, p.292b)

阿閼如來於內心 證得金剛波羅蜜 入金剛三昧耶加持一切三摩地智 自受用故 從五峰光明金剛菩提心三摩地智中 流出金剛光明 遍照十方世界 淨一切衆生大菩提心 還來收一聚 爲令印一切菩薩 自受用三昧耶智故 成金剛波羅蜜菩薩形 持金剛杵於毘盧遮那如來前月輪而住.(『大正藏』 18, p.293c)

이제 위의 다섯 경계들의 인용문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入三昧耶 = 一切如來大乘現證三摩耶 一切如來心 → 出生薩埵加持金剛三摩地 / ② 出生薩埵加持金剛三摩地=此名一切如來大乘現證三

味 卽一切如來心 / ③ 所生金剛加持三摩地 一切如來大乘阿毘三摩耶心
 名一切如來心 / ④ 證得 三摩地智 / 從三摩地智 流出五峰金剛光明 / ⑤
 住三摩地心 流出無量無邊祕密法門 / 入金剛三昧耶 加持一切三摩地智
 中 流出金剛光明

상기 5개의 경계들의 내용을 종합해 재정리하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일체 여래가 자신과 일체 중생을 가지하기 위해 삼매에 들어 서원(三
 昧耶)을 세우고 金剛三摩地를 出生(수행)하여 三摩地心(에 머물러)에
 들어가/으로부터) 金剛光明(祕密法門)인 37존을 유출(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卽身成佛과 衆生濟度の 原理로서의 三摩地和 三密加持神變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강정경』은 三昧→三摩耶(誓願)→三
 摩地修行→瑜伽(加持)→神變→出生이라는 밀교 독특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즉신성불과 중생제도라는 밀교세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핵심이라 할 三昧(三摩地)와 三密
 加持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神變을 선정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
 를 살펴봄과 동시, 이들이 밀교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원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자.

(1) 三昧와 三摩地(samādhi)

삼매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하는
 경지인 禪定 또는 定の 의미로 사용되나, 밀교에서는 이보다는 오히려
 三昧耶(三摩耶) 또는 三摩地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²²⁾

22) 위의 5개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三昧耶를 三摩耶 또는 三摩地和 혼용하여

곧 삼매야(삼마야 samaya)란 본래 一時・集會・教義를 나타내는 말이나, 밀교에서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本誓・平等의 의미로 사용하여, 如來께서 중생을 이락하게 하고 성불에 이르게 하기 위해 대비심을 내어 妙方便을 시설한 本誓, 곧 중생이 본래 여래와 동등・평등하다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밀교 경계에 자주 등장하는 三昧耶(印, 戒, 形)란 단어는 바로 이러한 뜻에서 파생된 말이다.

三摩地(samādhi)란 무상정등정각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최종 단계의 행법으로서, 보통 행자의 신구의 삼밀이 본래 여래의 삼밀과 동등하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一切如來心과의 가치를 통하여 행자의 삼밀을 여래의 삼밀로 변화시키는 행법을 지칭하는 말로 (또는 밀교의 가르침을 총칭하는 말로, 밀교행자만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三摩地(菩提心)를 이르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²³⁾ 상기 인용문의 ‘일체 여래가 자신과 일체 중생을 가지하기 위해 일체 여래심인 三摩耶 = 三昧 = 三昧耶에 들어가 金剛三摩地를 출생시키고 이 三摩地心에 住(入)(從)하여 금강광명(비밀법문)을 유출(출생)했다’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밀교의 所作-탄트라 경전에 속하는 『蘇婆呼童子經』에는²⁴⁾

悉地를 구하려는 행자는 오로지 마음을 한 곳에 攝해야 한다. 心이 調伏

사용하기도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 삼마야(Samaya)는 一時・集會・教義의 의미이다. 밀교에서는 이를 변용시켜 여래의 大悲와 여래와 중생이 평등하다는 뜻을 지닌 本誓・平等의 의미로 사용되고, 삼마지(samādhi)는 밀교만의 특성인 三密瑜伽行을 의미하는 삼마지보리심의 축약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三摩地菩提心, 三摩地法, 三摩地門, 三摩地念誦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다

24) 티베트의 밀교학자인 푸동(1290~1364)은 티베트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경전들(Tantra)을 下(①)→上(④)과 같이 점점 발전되는 형태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의 탄트라 ① kriyā(所作), ② Caryā(行儀), ③ Yoga(瑜伽), ④ Anuttara-Yoga(無上瑜伽)-Tantra로 분류하였다.

되면 환희를 얻고, 환희를 얻게 되면 身의 輕安과 안락을 얻어 心의 안정을 얻게 되며, 心의 안정을 얻으면 마음에 의혹 없어지고 罪 또한 멀해지게 되며, 心淸淨의 성취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²⁵⁾

하여, 성불에 있어 마음의 안정[攝心一境]의 중요성, 말하자면 마음의 조복을 위해 개발된 것이 삼매임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종합적 밀교논서로서 金胎兩部の 教理와 行法을 설하고 있는 『菩提心論』에는

이런 까닭(所以)에菩提를 求하려는 자는 菩提心을 발한 후 菩提行을 닦아야 되며, 이미 이와 같은 보리심의 마음을 發해 마쳤으면 (다음에는) 반듯이 보리심의 行相(事相)에 대해 알아야 한다. 행상은 三門으로 나눈다. 諸佛菩薩이 그 옛날 因地에서 마음을 發해 마친 후 勝義菩提心과 行願菩提心과 三摩地菩提心 이 세 가지 보리심을 戒로 삼고 성불하실 때까지 잠시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직 眞言法 중에만 卽身成佛을 주장하는 연고로 三摩地法을 설하고 (三劫成佛을 주장하는) 다른 敎에서는 이를 빠뜨려 설하고 있지 않다.²⁶⁾

라 하여, 먼저 勝義, 行願, 三摩地 등의 세 가지 보리심²⁷⁾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중 마지막의 三摩地菩提心(阿字觀, 五相成身觀, 月輪觀 등의 行法)은 三劫成佛을 부르짖는 현교에서는 설하지 않고 오직 즉신성불을 주장하는 밀교에서만 시설한 행법, 말하자면 밀교만이 지

25) “是故行者欲求悉地 當須攝心一境 其心調伏卽生歡喜 隨其歡喜卽身輕安 隨身輕安卽身安樂 隨身安樂卽得心定 隨其心定卽於念誦心無疑慮 隨其念誦卽便罪滅 隨其罪滅卽心淸淨 心淸淨故卽得成就”(『大正藏』 18, p.726b)

26) “所以求菩提者 發菩提心 修菩提行 既發如是心已 須知菩提心之行相 其行相者 三門分別 諸佛菩薩 昔在因地 發是心已 勝義 行願 三摩地爲戒 乃至成佛 無時暫忘 唯眞言法中 卽身成佛故 是故說三摩地於諸敎中 闕而不言”(『大正藏』 32, p.572c)

27) 三相菩提心이란 勝義行願三摩地の 菩提心を 말한다. 밀교에서는 이중 勝義菩提心を 文殊菩薩의 삼마지법, 行願菩提心은 普賢菩薩의 삼마지법, 三摩地菩提心은 法身毘盧遮那佛의 三摩地法이라 분류하고 있다.

나는 특성이라고 설하면서, 이 行法 때문에 즉신성불이 가능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곧

二乘人은 法執 있음으로 인해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지금의 보리
 심을 닦는 行法인 三摩地(修行法)와는 어떤 差別이 있는 것인가?²⁸⁾
 대답하기를 이승인은 법집(增上慢)으로 인해 오래오래 걸쳐야空的의 이
 치를 깨닫지만, 다시 無餘涅槃이란 空寂에 빠지게 되므로 劫數가 制限되
 어 (만기가 되어야) 비로소 大(乘)心を 發하게 된다. 또 大乘의 散善門의
 사람은 無數劫이 지나야 성불할 수 있어 염증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眞言行人은 이미 人執(麤妄執)과
 法執(細妄執)의 二執²⁹⁾을 (거기에 上執인 極細妄執, 곧 無明까지도)깨

28) 一切法無自性空에 대한 體得과 未體得, 그리고 成佛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長短,
 이 두 問題에 대한 問題提起와 그에 대한 答辯을 하고 있다. 密敎의 수행법인
 三摩地法에 대해 그 수승함을 강조하고 있다. 곧 修行者의 全體라 할 身口意
 三密을 총동원하여 宇宙의 진리인 法性和 契合시켜 나가는 三摩地觀法이야말로
 妙道の 觀法으로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을 가지고 卽時에 法身毘盧遮那佛의
 境地에 卽入하는 最高觀法인 것이다. 곧 같은 眞言을 持誦하더라도 結印을 하고
 지송하는 것과 結印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
 면 結印이 없다가나 意密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송하는 것은 化身佛의 眞言이
 되는 것이며, 意密의 상태에서 結印을 맺고 하는 진언은 法身佛의 眞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비록 비로자나불상 앞에서 염불을 하고 독경하더라도 그 修行法이
 三密修行이 아닐 때는 그 本佛은 法身の 本佛로서의 毘盧遮那佛이 아닌 化身의
 本佛로서의 毘盧遮那佛이 되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三密修行을 할 때는 行者의
 전체인 三密과 如來의 전체인 三密이 서로 相應하여 (佛)入我我入(佛)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法身 毘盧遮那佛과 하나 되는 밀교의 三密修行法을 일컬어
 妙道の 三摩地觀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法身과 化身의 관계는 太陽과 달에 비유할
 수 있다. 곧 태양은 스스로 빛을 發하여 萬物을 직접 길러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發하지 못하고 本體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反射의 빛으로만 만물의
 育成을 돕기 때문이다.

29) 我執과 法執의 差異를 설명하면, 我執이 없다면 三界六道에 輪廻하는 分段生死는
 없어지나, 理法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變易生死(碍正解障)는 남아있다.
 만일 法執이 없다면 두 가지 生死가 모두 없어진다. 我執과 法執이 똑같이
 집착하는 것이긴 하지만 法執(理障)이 我執(事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아집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法執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法執이 단절되는 시기에 대하여
 唯識家들은 제 10地の 法雲地の 金剛三昧때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교에서는

부수었기에 능히 올바르게 眞實을 볼 수 있는 智를 갖추었다. 하지만 시작도 모르는 틉새(無始間隔)로 인하여, (곧 佛과 衆生이라는 간격으로 一抹의 無明이 남아있어) 아직은 여러의 일체지지를 증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妙道인 (三摩地法)을 求하려는 자는 次序(次第)를 잘 지키고 따라야 무릇 凡으로부터 佛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³⁰⁾

라 하여, 二乘의 수행법의 단점과 大乘(특히 정토염불의 수행법)의 단점을 열거하면서, 人執(麤妄執)과 法執(細妄執)의 二執은 물론 일말의 무명(極細妄執)까지도 남김없이 없애는 밀교의 삼마지행법을 凡으로부터 佛位에 들어가게 하는 묘도의 행법이라 정의하며 그 수승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논은

만일 유가수행을 통해 모든 보살의 身을 이루려는 자는 이미 보리심을 발한 자이다. 그 까닭은 유가수행을 통해 나타난 제존들은 모두가 대비로자나불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³¹⁾

라 하여, 發菩提心者를 가리켜 菩薩身을 이루기 위해 瑜伽修行을 하는 자라 정의한 후, 유가수행때 나타난 제존(加持身)들을 범신 비로자나불과 동격이라 언급하는 등³²⁾ 유가행의 수승함을 피력하고 있다. 또

“大金剛薩埵五秘密瑜伽法門을 四時 곧 行住坐臥四儀之中에 끊임없이 수습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계에서 人執과 法執의 二執이 모두 다 평등해져서 現生에 初地에 들어가며, 점차 五密(發心, 修行, 菩提, 涅槃, 方便)을 닦음으로 인해 涅槃과 生死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不空譯, 『金剛頂瑜伽金剛薩埵五秘密修行念誦儀軌』(『大正藏』 20, p.535c)

30) “言二乘之人 有法執故 不得成佛 今復令修菩提心三摩地者 云何差別 答二乘之人 有法執故 久久證理 沈空滯寂 限以劫數 然發大心 又乘散善門中 經無數劫 是故足可厭離 不可依止 今眞言行人既破人法二執 雖能具正見眞實之智 或爲無始間隔 未能證於如來一切智智故 欲求妙道 修持次第 從凡入佛位者”(『大正藏』 32, p.574b-c)

31) “若願成瑜伽中諸菩薩身者 亦名發菩提心 何者謂此諸尊 皆同大毘盧遮那佛身”(『大正藏』 32, p.572c)

32) 曼荼羅上の 모든 佛菩薩을 의미한다.

논은

유가의 수승한 法을 닦는 (眞言行)자는 능히 凡으로부터 佛位에 들어가는 자이기에 십지보살의 경계 또한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³³⁾

三摩地者인 진언행인은 무엇이 능히 無上菩提를 증득하게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요지해야 한다. 곧 (진언행인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삼마지란 普賢大菩提心に 安住하는 것임을 … (중략) 곧 일체중생이 본래 금강살타임에도 불구하고 탐진치 등의 삼독번뇌에 속박되어있어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대비자이신 諸佛께서 秘密瑜伽觀法인 自心に 보름달을 觀하는 白月觀을 제시하신 것이다.³⁴⁾

라 하여, 유가행을 수승한 법, 또 이러한 三摩地를 수행하는 자를 일러 진언행인이라 정의한 후, 그 이유를 이 유가행이야말로 중생을 佛로 등극케 하는 법, 말 바꾸면 無上菩提를 증득케 하는 관법이기 때문이라 밝힌 후, 삼마지란 普賢大菩提心に 安住하는 것, 곧 一切衆生은 본래 금강살타³⁵⁾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普賢大菩提

33) “復修瑜伽勝上法人 能從凡入佛位者 亦超十地菩薩境界”(『大正藏』 32, p.573b)

34) “三摩地者眞言行人如是觀已 云何能證無上菩提 當知法爾應住普賢大菩提心 一切衆生本有薩埵 爲貪瞋癡煩惱之所縛故 諸佛大悲 以善巧智 說此甚深秘密瑜伽 令修行者 於內心中 觀白月輪”(『大正藏』 32, p.573c)

35) 金剛薩埵를 말한다. 金剛薩埵(陀)란 金剛界曼荼羅 成身會의 37尊 가운데 16大菩薩의 首長이며, 金剛界만다라의 東方 阿閼佛의 四親近菩薩의 上首菩薩이자 理趣會의 中臺主尊이며, 胎藏界만다라에서는 金剛手院의 主尊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金胎兩部 經典에 등장하는 一切修行者의 理想的의 모델로서 法身 비로자나불의 功能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분이다. 一切衆生은 본래부터 自性淸淨心의 소유자이다. 때문에 普賢菩薩이라 하기도 하고 金剛薩埵라 하는 것이다. 金剛手, 持金剛, 執金剛, 秘密主, 普賢薩陀, 金剛藏이라고도 한다. 金剛과 같은 菩提心을 지닌 衆生으로 그 무엇에도 退轉하지않고 一切의 煩惱와 싸워 이겨 大悲로서 一切衆生을 깨달음의 길로 引導하는 자이다. 『五秘密儀軌』에는 “金剛薩陀는 普賢菩薩 卽一切如來長子 是一切如來菩提心 是一切如來祖師 是故一切如來禮敬金剛薩陀”(『大正藏』 20, p.538a); 『金剛頂經開題』에는 “一切衆生 最初 發心할 때 金剛薩陀의 加持에 緣由하

心에 안주하는 방법으로 白月輪의 관법을 제시하고 있다.³⁶⁾ 또한 논은

이 三摩地는 능히 諸佛自性에 통달하고 諸佛法身을 證悟케 하는 것으로
법계체성지를 증득하여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등류신인 대비로자나불
을 이루는 것이다. 수행자가 아직 이를 증득하지 못했다면 이치를 잘
알아 모름지기 닦아야 한다.³⁷⁾

고 하여, 밀교의 삼마지법이 제불자성을 통달케 하고, 제불법신을
깨닫게 하는 수승한 수행법으로,³⁸⁾ 이를 통해 法性인 법계체성지가 증
득되어³⁹⁾ 마침내 法身인 대비로자나불의 四種法身に 등극하는 것이라

는 까닭에 金剛薩陀를 일러 一切如來의 菩提心이라 부르는 것이다. 곧 金剛薩陀가
根本이 되어 金剛界37尊과 四種法身이 出生하기 때문이다.”(『大正藏』 61, p.5a);
『仁王般若陀羅尼釋』에는 “金剛手者 瑜伽經釋云 手持金剛杵 表內心具大菩提 外表
摧伏諸煩惱 故名金剛手. 云何菩提薩埵義 覺悟眞實法 覺已住生死 令覺悟一切有情
故名菩提薩埵.”(『大正藏』 19, p.522a); 『金剛頂經』에는 “기이하도다. 普賢이요,
견고한 金剛薩埵는 자연의 當體로서 견고함으로부터 사대의 別德을 나타냈으니
實相은 형상의 몸이 아닌 法體의 몸인 것이다. 다만 方便으로 三摩地菩提心の
주인인 金剛薩埵의 몸을 얻었을 뿐이다.(奇哉大普賢 堅薩埵自然 從堅固無身 獲得
薩埵身)”(『大正藏』 18, p. 292b). 곧 金剛薩陀는 左手로는 金剛鈴을 쥐고 무릎에
대고, 右手로는 金剛杵를 쥔 상태에서 가슴에 대고있다. 左手는 定門과 16大供養菩
薩을 상징하고, 右手는 慧門과 16大菩薩을 象徵한다.

36) 普賢大菩提心이란 生滅이 없는 眞理, 말하자면 形體가 없는 보리심을 人格化한
것으로, 일체중생들의 當體로서 自性淸淨心인 智慧의 性品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
로, 이것이 중생세계에 나타나면 本有薩埵가 되고, 부처세계에 나타나면 毘盧遮那
佛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혹한 중생들은 탐·진·치 三毒이란 妄想에 뒤덮이고
煩惱에 몰들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行願菩提心を 觀音의 大悲라 한다면,
勝義菩提心은 文殊의 大智가 되고, 密敎만이 설하는 三摩地菩提心은 智慧와 慈悲를
구족한 普賢의 菩提心이 된다. 곧 三摩地菩提心を 人格化한 것이 普賢菩薩이며
金剛薩埵인 것이다.

37) “即此三摩地者 能達諸佛自性 悟諸佛法身 證法界體性智 成大毘盧遮那佛 自性身
受用身 變化身 等流身 爲行人 未證故 理宜修之”(『大正藏』 32, p. 574c)

38) 本來부터 自身에 具足되어 있는 圓明의 性品の 터득을 말한다. 곧 胎藏界의 理法身の
德이자 阿字本不生의 理인 理具成佛의 體득을 말하는 것으로, 三密加持修行을
통하여 現身에 이를 체득하여 佛身을 成就하는 것을 말한다.

39) 理法身과 智法身の 德 모두를 터득했음을 말하고 있다. 곧 四智의 攄持인 一切智智를

극찬하고 있다.⁴⁰⁾

(2) 瑜伽, 加持

瑜伽(yoga)란 心을 統一하고, 意를 制御하여 本尊과 合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밀교에서는 身口意의 三密瑜伽(加持)行을 통하여 本尊과 一體가 되는 것을 주장한다.

加持(Adhiṣṭhāna)란 힘을 더한다는 뜻으로 尊格의 絕對慈悲가 행자의 마음에 비추어져 존격의 절대지혜와 자비가 그대로 行者의 身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밀교가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眞言名目』, 『大日經開題』, 『秘藏記』에는 각각

중생의 본각공덕과 제불의 감응방편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기에, 身心 본유의 공덕이 일념의 순간 顯現하게되어, 제법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一切의 佛事를 모두 이루어 내는 것, 그것을 일러 加持라 하는 것이다. 곧 加라고 하는 것은 諸佛의 大悲가

가리키는 法界體性智의 體得을 말하고 있다.

- 40) 胎藏界와 金剛界 등 兩部曼荼羅의 모든 권속이 지닌 四種法身의 德을 成就했음을 의미한다. 四種法身이란 法身毘盧遮那佛의 根本智이자 法界에 遍滿되어 있는 根本性品인 法界體性智(體)로부터 나타나는 4가지 相이며 用이다. 곧 이를 金剛界曼荼羅의 四佛으로 표현하면 東方의 阿閼佛로 나타날 때는 自性法身과 大圓鏡智가 되며, 南方의 寶生佛로 나타날 때는 受用法身과 平等性智가 되며, 西方의 阿彌陀佛로 나타날 때는 變化法身과 妙觀察智가 되며, 北方의 不空成就佛로 나타날 때는 等類法身과 成所作智가 되는 것이다. 한편 胎藏界曼荼羅의 四佛으로 표현하면 四重構造中的 第1重에 해당되는 中臺八葉院과 그것을 둘러싼 遍知院과 觀音院과 金剛手院과 持明院 등의 5院이 自性法身이 되며, 제 2重에 해당되는 釋迦院과 地藏院과 虛空藏院과 除蓋障院의 四院이 受用法身이 되며, 제 3重에 해당되는 文殊院과 蘇悉地院 등의 2院이 變化法身이 되며, 제 4重에 해당되는 最外院이 等類法身이 되는 것이다. 또 大日經의 四佛으로 표현하면 大日如來는 自性法身이 되며, 寶幢佛 開敷華王佛 無量壽佛 天鼓雷音佛 등의 四佛은 受用法身이 되며 釋迦牟尼佛은 變化法身이 되며 外金剛部에 속해 있는 모든 부류들은 等流法身이 되는 것이다.

行者에 加해지는 것을 말하며, 持라고 하는 것은 행자의 信心이 佛因을 감응하는 인연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불가사의가 나타나기에 이를 加持成佛이라 하는 것이다.⁴¹⁾

往來攝入을 加라하며 모두 접해서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을 持라 하니, 부처님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 역시 부처님께 들어가는 入我我入의 뜻이 그것이다.⁴²⁾

加라고 하는 것은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의 護念이며, 持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거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⁴³⁾

라 하여, 중생의 본각공덕과 제불의 감응방편이 서로 상응하는 것을 加持라 하고, 이 가지에 의해 중생이 지닌 身心 본유의 공덕이 顯現하여, 그 자리에서 제법의 실상을 깨닫고 一切의 佛事를 이루어 내기에 加持成佛이라 한다며, 가지의 개념과 그 공덕을 세간과 출세간의 성취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일경소』에는

如來께서 自在神力加持三昧에 머무시며 두루 일체중생을 위해 중생의 중종의 趣向과 性慾과 心行에 따라 몸과 마음을 나투어 法을 설하시며 觀照하게 하신다.⁴⁴⁾

라 하여, 여래의 自在神力加持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여래의 대비심과 연민에 의해 시설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일경소』는

41) 『眞言名目』(『大正藏』 77, p.734a)

42) 『大日經開題』(『홍법전서』 권1, p.687)

43) 『秘藏記』(『홍법전서』 권2, p.36)

44) “是故住於自在神力加持三昧 普爲一切衆生 示種種諸趣所喜見身 說種種性慾所宜聞法 隨種種心行開觀照門”(『大正藏』 39, p.579b)

마치 사자가 평상시엔 깊은 동굴 속에 있어 움직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동굴을 뛰어나와 신속히 움직이는 것처럼, 如來의 加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만일 如來의 加持神力이 아니라면 미묘한 寂絶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여래가 身口意의 모습과 소리를 끝없이 펼쳐 보이시며 法界에 遍滿히 나투시는 것을 일러 諸佛의 奮迅이라 하는 것이다.⁴⁵⁾

行人 만일 깊이 瑜伽境界三昧에 들어가 분명히 聽聞한다면 正說의 날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날을 일러 佛의 加持日이라 하는 것이다.⁴⁶⁾

라 하며, 중생구제를 위해 무한히 變身하시는 여래의 加持神力을 獅子의 위신력, 곧 먹이를 구할 때는 평상시와 달리 몸을 떨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가지신력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시설된 여래의 위엄과 위신력이라 설명하면서, 따라서 수행자가 이러한 유가삼매에 들어가 부처님과 유가한다면 그 날이 바로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청문하는 入我我入의 加持의 날이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3) 加持 設定의 目的

『金剛峰樓閣瑜伽瑜祇經』에는

45) “如師子王在深窟中安住不動 有時出穴頻申奮動 卽是其身本不動今則離其常處而動故也 佛亦如是 若非如來加持神力 則微妙寂絶不可得示現 今乃示現無盡身口意種種形聲 遍滿法界 卽是諸佛奮迅也”(『大正藏』 39, p.725c)

46) “然諸行人 若深入瑜伽境界三昧時 自當了了聽聞 如正說時無異 是以故名爲佛加持日也”(『大正藏』 39, p.646a)

법신비로자나여래께서 五智로 이루어진 四種法身으로서 本有의 金剛界自在 大三昧耶自覺의 本初大菩提心인 普賢의 滿月金剛光明的 心殿에서 自性所成의 金剛계만다라 권속들의 本誓加持를 통하여 스스로 金剛月輪에 머무시며 智光明의 金剛杵로서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金剛의 권속들을 出現케 하시니 그 수가 虛空法界에 두루하였다. (중략) 熾然光明의 自在威力은 삼세에 걸쳐 잠시도 쉬지 않고 化身으로 화하여 유정을 이락하게 하는데, 이처럼 여래는 때 묻지 않은 청정한 金剛自性光明에서 나오는 衆衆의 業用的 方便가지로서 衆生을 구제하시며 金剛乘의 법을 설하시는 것이다.⁴⁷⁾

라 하여, 금강계만다라의 모든 권속들이 여래와 衆生의 속성이며 우주법성인 本有의 普賢 大菩提心에 대한 자각, 곧 법성신인 비로자나의 加持를 통해 출현했다는 것과 불가사의 그 자체인 神變이 衆生을 구제하기 위한 여래의 대비방편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大日經疏』에는

如來가 加持神力으로 法界에 두루한 身口意를 펼쳐 보이시며 生死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은 如來의 方便때문으로 만일 이러한 方便이 없다면 如來의 本地인 衆生사랑은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⁴⁸⁾

여래는 加持神力으로서 마땅히 제도할 이에게는 여러 가지 법문에 따르 모습을 나타내신다. 곧 여래는 가지신력으로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47) “薄伽梵金剛界遍照如來 以五智所成四種法身 於本有金剛界自在大三昧耶自覺本初大菩提心普賢滿月不壞金剛光明心殿中 與自性所成眷屬金剛手等十六大菩薩及四攝行天女使金剛內外八供養金剛天女使 各各以本誓加持 自住金剛月輪 (中略) 各以智光明峰杵 出現五億俱胝微細金剛 遍滿虛空法界 (中略) 熾然光明自在威力常於三世 不壞化身利樂有情 無時暫息 以金剛自性光明遍照清淨不染種種業用 方便加持救度有情 演金剛乘”(『大正藏』 18, pp. 253c-254a)

48) “復以加持神力 普現身口意 遍滿生死中 當知此即是方便也 若離方便 如來本地尙不可說 何況以示人耶”(『大正藏』 39, p.788b)

알게 하는 등 가지신력으로써 법계에 들어가신다.⁴⁹⁾

라 하여, 여래께서 중생에 나타나실 때는 신변을 통하여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러한 불가사의한 여래의 신변력은 중생의 이락을 위해 여래가 시설하신 여래의 대비 방편력, 곧 중생사랑으로 뭉쳐진 여래의 自在神力加持三昧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면서 衆生 無限하므로 여래가 나투시는 加持身 또한 무량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胎藏界法の 儀軌書로서 대일경의 이해를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중요 주석서로 인정받고 있는 新羅僧 不可思議의 저서인 『대일경공양차제법소』에는

세존께서 일체 중생을 두루 加持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끝내 平等種子를 지어 곧 바로 法界의 胎藏三昧에 들게 하기 위함이다.⁵⁰⁾

라 하여, 부처님께서 加持를 시설하신 목적이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이 여래와 똑 같은 평등성의 소유자임을 알게 하여 여래의 大悲胎藏三昧에 들게 하기 위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4) 加持行法の 精髓, 三密瑜伽行

위에서 여래께서 加持를 施設하신 目的이 중생들로 하여금 여래와 똑 같은 평등성의 소유자임을 알게 하여 如來의 大悲胎藏三昧에 들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중생은 이러

49) “以如來加持神力 令應度者隨諸法門表像 若可見聞觸知 卽以此爲門而入法界”(『大正藏』 39, p.580c)

50) “世尊普遍加持一切衆生 皆作平等種子竟 卽時入於遍法界胎藏三昧”(『大正藏』 39, p.794c)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 다시 말해 부처님과 중생을 하나로 묶어 낼 연결고리로서 삼밀유가행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인 묘문을 착안하여 제시하셨다. 이제 연결고리로서 제시된 삼밀유가행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부처님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삼밀유가행이란 묘안을 제시한 『대일경』은 三密의 설명 중 「密印品」과 「秘密八印品」에서는 身密을, 「普通眞言章品」과 「轉字輪曼荼羅行品」에서는 口密을, 그리고 「入曼荼羅具緣品」(이하 「具緣品」)에서는 意密(만다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具緣品」에는

만일 如來族으로 이 戒에 주하는 자는 그 어느 것도 짓지 말고 오직 身口意만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무엇을 戒라고 하나 하면 관찰하여 自身을 버리고 諸佛菩薩에 奉獻하는 것을 말한다. 自身을 버린다는 것은 身口意 세 가지를 버린다는 것으로 그래야 여래족이 되는 것이다. 곧 (여래로서의) 身口意의 戒를 받아야 菩薩이라 하는 것으로, 그 까닭은 이것에 의해서만이 (무명에 찌든) 自己의 身口意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비밀주여! 眞言門을 통하여 菩薩行을 닦는 보살들은 다음과 같이 自身の影像을 生起해야 한다. (중략) ‘六根이란 四大가 모아진 것으로, 自性도 이와 같아 오직 名字에 집착해서만 존립하는 것, 곧 구경에는 쉰인 것으로 마치 虛空과 같고 影像과 같아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중략) 곧 緣起해서 생기한 것은 影像이 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本尊이 곧 나요, 나는 곧 本尊으로서 상호 發起하는 것이다.⁵²⁾

51) “若族姓子住是戒者 以身語意合爲一 不作一切諸法 云何爲戒 所謂觀察捨於自身 奉獻諸佛菩薩 何以故若捨自身則爲捨彼三事 云何爲三 謂身語意 是故族姓子 以受身語意戒得名菩薩 所以者何 離彼身語意故”(『大正藏』 18, p.848b)

52) “秘密主 眞言門修菩薩行諸菩薩 如是自身影像生起 無有殊勝過三菩提 如眼耳鼻舌身意等 四大種攝持集聚 彼如是自性空 唯有名字所執 猶如虛空 無所執着等於影像 彼如來成正覺 互相緣起無有間絕 若從緣生 彼卽如影像生 是故諸本尊卽我 我卽本

라 하여, 어떤 자를 여래족이라 부르고 또 보살이라 하는지를 신구의 三密과 관계지어 설명하고 있다. 곧 일명 <三世無碍智戒>라고 일컬어지는 이 경구에서, 경은 각자에 있어 三業이 왜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의 나의 신구의는 어떤 상태인지? 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 왜 새로 身口意의 戒를 받아야 보살이라 하는지?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말하자면 진정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의 신구의를 여래의 신구의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뒤이어 소위 入我我入이라는 本尊瑜伽의 근거로서 자주 인용되는 경문을 제시하고 있다. 곧 나를 비롯한 모든 것, 심지어 如來조차도 因緣生으로서 空인 것이기에, 그 空性이라는 점에 있어서 나와 여래는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 一切法 無自性空이란 緣起法性和 여래와 내가 同質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상기시키는 영상법을 통하여, <나즉시본존>이며 <본존즉시나>라는 소위 瑜伽加持行法の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일경소』는 중생의 三業 → 여래의 三密로의 轉換의 방법을 여래와의 三密瑜伽(加持)行으로 제시하고 있다. 곧

眞實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眞言을 持誦하고 結印하고 本尊을 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셋에 專念해야 비로소 本尊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곧 本尊이란 眞實의 理致에 계합하는 것으로서 그저 本尊을 바라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본존과 同等하다는 것을 如實하게 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3가지 平等, 곧 몸은 곧 結印이며, 말은 眞言이며, 마음은 곧 本尊이라는 3가지 平等方便이 있는 것으로, 이 3가지가 眞實로 모두 나와 하나가 되어 行者의 三平等과

尊 互相發起”(『大正藏』 18, p.41a)

如來의 三平等이 똑같아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볼 때에야 비로소 眞實이라 하는 것이며, 이러할 때에야 결정코 佛海의 大金剛界大曼荼羅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⁵³⁾

라 하여, 여래와 내가 同質이라는 影像을 지닌 상태에서,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으로는 여래의 언어인 眞言을 지송하고, 몸으로는 如來의 상징인 大悲를 나타낸 몸짓을 그대로 흉내내게 되면, 여래는 곧 내가 되고, 나는 곧 여래가 된다는 소위 入我我入의 本尊瑜伽, 다시 말해 신체(密印)와 말(眞言)과 마음(影像) 이 셋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또 나의 신체와 말과 마음은 여래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평등하다는 소위 여래와 나는 水平的 내지 垂直的으로 同質性이라는 身口意 三密平等句의 法門을 설하고 있다. 뒤이어 『대일경소』는

수행자가 이 三方便(密印, 眞言, 觀本尊)으로서 삼업을 청정히 하면 여래의 삼밀에 가지된 바 되어 今生에서 十波羅蜜을 성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모든 世間事도 성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⁵⁴⁾

不可思議의 神變도 이와 같아서 眞言과 本尊觀과 密印등이 함께 緣이 되어야만 이와 같은 悉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곧 眞言에 의해 口業이 淸淨해지고, 本尊觀에 의해 意業이 淸淨해지고, 結印에 의해 身業이 淸淨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三事(身口意)가 平等해야 비로소 자연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⁵⁵⁾

53) “自眞實謂自持眞言手印想於本尊 以專念故能見本尊 本尊者卽是眞實之理也 非但見本尊而已 又如實觀我之身卽同本尊 故名眞實也 此有三平等之方便 身卽印也 語卽眞言也 心卽本尊也 此三事觀其眞實究竟皆等我 此三平等與一切如來三平等無異 是故眞實也 行者修行時 佛海大會決定信得入”(『大正藏』 39, p.752b)

54) “行者以此三方便 自淨三業 卽爲如來三密之所加持 乃至能於此生 滿足地波羅密 不復經歷劫數 備修諸對治行”(『大正藏』 39, p.579b-c)

55) “今悉地不思議神變亦如是 但猶眞言觀本尊及身印等緣而成悉地 由眞言故口業淨 觀本尊故意業淨 印故身業淨 三事平等故自然而有不思議業”(『大正藏』 39, p.739b)

金剛手를 비롯한 모든 권속들은 이와 같은 加持世界에 있어서는 오직 三平等의 法門만이 설해짐을 마땅히 알아야한다. 곧 如來가 장차 一切의 乘을 통섭한 自心成佛의 가르침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⁵⁶⁾

라 하여, 眞言과 本尊觀과 密印 등 三事の 중요성과 行者와 如來와의 平等性, 말 바꾸면 三密加持와 平等性에 대한 自覺, 그것이 眞實의 본뜻으로서, 이러한 진실에 계합하기 위해서는 三密加持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까닭은 이를 통해야만 身口意의 三業이 여래의 三密과 加持되어 淸淨해지기 때문이라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금껏 설한 밀교의 加持法門, 곧 三平等의 法門인 三密平等의 加持法門은 大乘의 모든 일체의 가르침을 통섭한 최고의 수증한 自心成佛의 가르침으로서 밀교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5) 加持功德으로서의 神變

加持에 의해 修行者는 相對尊格이 지니고 있는 特性을 그대로 傳授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小大乘의 실천행이라 할 修行 (37菩提分法, 六派羅蜜)을 마스터한 것과 同一한 意味를 지니게 되며, 그 결과 本具의 自性淸淨心인 毘盧遮那佛에 歸一케 된다고 보는 것이 밀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말 바꾸면 加持를 받으면 그 결과로 衆生의 本性인 自性淸淨心에 계합되어 우주법성인 毘盧遮那佛에 回歸된다고 보는 것이 밀교의 입장이다. 밀교의 입장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이전의 불교인 大乘은 이 신변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대승의 경론인 『大智度論』과 『菩薩瓔珞經』, 그리고 『大寶積經』과 『華

56) “當知金剛手等 亦復如是普見加持世界 唯說平等法門 卽知如來 將演遍一切乘自心成佛之教”(『大正藏』 39, p.584b)

嚴經』에는 각각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설하시기 위해 종종의 神變을 나타내신다.⁵⁷⁾

여래는 그 빛남이 金鑛과 같아 수미산과 같으며, 위신력과 광명 또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바 없을 만큼 뛰어나다. 곧 道德과 威儀가 높고 무량하고, 그 광명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는 등 여래는 이와 같은 神變으로서 十方을 감동시킨다.⁵⁸⁾

여래는 3가지 神變, 곧 설법과 가르침과神通으로서 중생을 조복시킨다.⁵⁹⁾

여래의 일체 경계는 불가사의해서 그 어떤 중생도 측량할 수 없다. 곧 佛身은 虛空과 같아 다함이 없으며, 그 어떤 모습도 장애 없이 두루 시현하시며, 應現해야 할 곳이 있으면 마치 幻化와 같이 나타나신다. 곧 淸淨한 音聲은 두루하며, 佛身 또한 허공과 같아 끝이 없다. 여래의 지혜광명과 청정음, 또한 이와 같아 그 神變이 무애자재하다. 곧 여래는 제법에 있어 그 어떤 장애도 없어, 마치 月光이 일체를 비추듯 그 광명이 끝이 없어 시방의 무량국토를 두루 비추며 일체 중생으로 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신다.⁶⁰⁾

라 하여,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위해 무애자재한 神變을 현출하시

57) “佛爲說般若派羅蜜 現種種神變”(『大正藏』 25, p.138c)

58) “在衆中如須彌山 晃若金積 威神光明超世無雙 道德威儀巍巍無量 放大光明靡所不照 復以神變感動十方”(『大正藏』 16, p.1b)

59) “佛告天子 我以三種神變調伏衆生 一者說法 二者教誡 三者神通”(『大正藏』 11, p.492b)

60) “一切佛境界甚深難思議 諸餘衆生類莫能測量者 佛身如空不可盡 無相無碍普門示現 所可應現如幻化 神變淨音靡不周 佛身無邊如虛空 智光淨音亦如是 佛於諸法無障礙 猶如月光照一切 佛慧光明無邊際 普照十方無量土 令一切衆生觀 佛種種方便化衆生”(『大正藏』 9, p.401b)

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중 『대지도론』의 ‘반야바라밀을 설하기 위해 신변을 현출하신다’는 말씀, 『대보적경』의 ‘여래께서는 3가지 형태의 신변, 곧 설법과 가르침과神通의 모습으로 신변을 내신다는 말씀, ‘虛空幻化月光 등을 예로 들며 如來神變의 무애자재함을 설하는 『화엄경』의 말씀은 이제부터 살펴 불 밀교경전에서의 신변 이론의 밀거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밀교경전에서의 신변을 살펴보자. 먼저 『大日經』에는

“大牟尼加持 利益衆生故 應化作神變”⁶¹⁾과 “一切로 하여금 願하는 바에 따라 生起시켜서 널리 神變의 無上句를 배운다.”⁶²⁾

라 하여, 일체 중생을 利益케 하기 위해 원하는 바에 따라 應化神變하는 如來의 不可思議한 神異, 그것이 神變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大日經疏』는

범어로는 vikurvita로서 踊躍 遊戲 神變의 뜻을 갖는다. 소위 初發心 이후부터 깊이 善根을 심고 種種의 願行을 일으켜 佛土를 장엄하고 중생의 원을 모두 성취할 때까지 한시도 쉼이 없이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넘고 또 넘고 오르고 또 올라가면서, 흔들고 움직이고 두드리고 춤추는 등의 온갖 善巧三業을 통하여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에 騰躍 또는 遊戲라고 하는 것이다. 곧 이것은 보살의 自在神通으로서, 옛날 비로자나가 보살도를 닦을 때 一切速疾力三昧로서 무량의 선지식들을 공양하고 무량한 바라밀행을 닦는 등 自利와 利他的 법을 모두 구족하고 보물과 같은 如來智를 집성한 결과 이와 같은 秘密莊嚴의 法界樓觀을 얻은 것이다. 마치 세상에서 cintamani를 모든 보물 중 최고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神變을 일러 일체의 진실한 보답으

61) 『大正藏』 18, p.40b

62) “乃至令一切 隨思願生起 悉能爲施作 神變無上句”(『大正藏』 18, p.40b)

로 얻어진 가운데 第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遊戲神變으로부터 출생한 大寶王의 누각이라 한 것으로, 그 높이와 넓이가 무한해서 가히 측량할 수 없기에 그래서 중간이 없다고 한 것이다. 말하자면 몸이 一切處에 두루하기에 몸의 거처인 누각 역시 일체처에 두루하게 되는 것이다.⁶³⁾

라 하여, 여래가 지닌 불가사의한 신변의 의미를 踊躍 遊戲라 해석함과 동시, 이러한 신변은 여래가 초발심부터 願行을 일으켜 성불할 때까지 쉽이 없이 그것도 기쁨을 가지고 닦은 공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지금도 여래께서는 끊임없이 뛰며 춤추며 중생을 이락케 하는 것이기에 용약 또는 유희라 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여래가 지닌 神變의 무애자재함과 중생사랑의 무량함을 설하고 있다. 또한 뒤이어

三平等處에 머문다는 것은 身口意 三平等의 秘密加持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위 身平等인 密印(mudrā)과 口平等인 眞言(dhāraṇī)과 心平等인 妙觀(samādhi)으로 방편을 삼는 것으로 이에 의해 加持受用身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加持受用身은 곧 모든 면에서 비로자나와 一體가 되는 것으로서 수행자 역시 비로자나와 똑같은 智身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金剛乘에 住하는 자는 行하지 않아도 行하게 되고, 이르지 않아도 이르게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平等句라 하는 것이다.⁶⁴⁾

63) “梵云微吃哩拏多 是踊躍義 遊戲義 神變義 謂從初發心以來 深種善根 起種種願行 莊嚴佛土 成就衆生 恒殊勝進 不休息故 即是超昇騰躍義 如人掉動鼓舞 能以善巧三業 普悅衆心 故此騰躍 卽名遊戲 如是遊戲 卽是菩薩自在神通 言毘盧遮那本行菩薩道時 以一體速疾力三昧 供養無量善知識 遍行無量諸度門 自利利他法皆具足 能得如是如來智寶之所集成 秘密莊嚴法界樓觀 於一切實報所生最爲第一 猶如眞陀摩尼爲諸寶之王 故曰遊戲神變生大樓閣寶王也 其高無窮 當知廣亦無際 以邊不可得故 亦復無中 此是遍一切處身之所住處 當知如是樓觀 亦遍一切處也”(『大正藏』39, p.580c)

64) “次第進修 得住三平等處 故名爲句 卽以平等身口意秘密加持 爲所入門 謂以身平等之密印 語平等之眞言 心平等之妙觀 爲方便故 逮見加持受用身 如是加持受用身 卽是毘盧遮那遍一切身 遍一切身者 卽是行者平等智身 是故住此乘者 以不行而行

金剛藏보살이 비록 一切種智를 究竟하지는 못했지만 가지에 의해 이제 妙覺世尊과 동등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오직 十方諸佛의 神力으로 함께 加(持)된 바 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大會中에 있어서 여래가 證한 바와 동등하게 되었다. 만일 神力加持를 벗어난다면 절대로 결정코 여래와 동등하지 못할 것이다.⁶⁵⁾

하여, 加持라고 하는 것이 衆生救濟라고 하는 여래의 대비원력에 의한 방편으로서, 만일 如來의 이러한 加持方便이 施設되지 않았다면 중생들은 결정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여래와 加持를 하는 자는 法身 비로자나여래와 동등한 智身, 곧 위신력의 소유자인 加持身이 되는 것으로, 가지신이 지니는 이러한 신변자의 위신력은 모두가 가지의 공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6) 衆生濟度の 原理, 三密加持와 그것의 循環

『略述金剛頂瑜伽分別修證法門序』에는

自受用佛은 心으로부터 무량한 보살을 유출하니 모두가 同一한 性品이다. 이른바 金剛性으로서 (이들은 모두) 遍照如來로부터 灌頂의 직위를 받게 되는데, 그들 菩薩은 각각 비로자나를 비롯한 일체 여래에게 삼밀문의 설법을 마치며 加持 敎勅을 청한다.⁶⁶⁾

以不到而到 而名爲平等句”(『大正藏』 39, p.583a)

65) “然金剛藏 雖未卽究竟一切種智 而同於妙覺世尊 但以十方諸佛神力共所加故 亦於大會中 亦如如來所證同等 若離神力加持 卽亦未得究竟與如來等也”(『大正藏』 39, p.729 c)

66) “自受用佛 從心流出無量菩薩 皆同一性 謂金剛性 對遍照如來 受灌頂職位 彼等菩薩 各說三密門 以獻毘盧遮那及一切如來 便請加持敎勅”(『大正藏』 18, p.288a)

『金剛頂經議決』에는

五方如來와 十六大菩薩과 四派羅蜜菩薩과 內外四供養菩薩과 四攝菩薩이 出生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량없고 깊고 깊은 智慧와 걸림없는 神變三昧의 相을 지니고 있다.⁶⁷⁾

『金剛頂經』에는

위대하도다. 諸佛大普賢이여! 이 모든 보살의 묘하고도 경건한 의의는 일체여래의 대만다라로서 일체여래상을 나타낸다. 이 말을 마치자 시방 세계에서 모인 일체 여래와 보살이 일체 여래의 加持力으로 인해 세존 대비로자나여래의 마음에 들어와 일체 여래의 마음에 좇아 각각 보살중회에 모습을 보였다.⁶⁸⁾

또 『대일경소』에는 앞서 인용한 바 있듯이,

범어로는 vikurvita로서 踊躍 遊戲 神變의 뜻을 갖는다. (중략) 이것은 보살의 自在神通으로서, 옛날 비로자나가 보살도를 닦을 때 一切速疾力三昧로서 무량의 선지식들을 공양하고 무량한 바라밀행을 닦는 등 自利와 利他的 법을 모두 구족하고 보물과 같은 如來智를 집성한 결과 이와 같은 秘密莊嚴의 法界樓觀을 얻은 것이다. 마치 세상에서 cintamani를 모든 보물 중 최고로 삼듯이, 이 神變을 일체의 진실한 報答으로 얻은 第一이라고 하는 것이다.⁶⁹⁾

67) “五方如來十六菩薩四波羅蜜及內外四供養四攝諸菩薩等 一一皆有無量甚深智用智門祕密境界無礙神變三昧之相”(『大正藏』 39, p.815a)

68) “大哉諸佛大普賢 是諸菩薩妙敬議 一切如來大輪壇 影現一切如來像作是說已 是時十方世界所來集會 一切如來并諸菩薩 以彼一切如來加持力故 混入世尊大毘盧遮那如來心 復從一切如來心 各各出自菩薩衆會”(『大正藏』 18, p.351c)

69) “梵云微吃哩拏多 是踰躍義 遊戲義 神變義 (中略) 卽是菩薩自在神通 言毘盧遮那本行菩薩道時 以一體速疾力三昧 供養無量善知識 遍行無量諸度門 自利利他法皆具

諸佛의 實相과 眞言實相 그리고 衆生實相은 광대법계로서 이들이 상호 가지하는 까닭에 法界加持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男女가 상호 交會하는 인연으로 인해 조금도 잃어짐이 없이 種子가 胎藏에 託胎되는 것처럼, 相(互)加持도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다.⁷⁰⁾

라 하여, 『법화경』 『묘음보살품』에서 설한 묘음보살의 神變過程⁷¹⁾ (現一切色身三昧를 나투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함)처럼, 여래가 지닌 불가사의한 신변의 위신력은 수행자 시절부터 三密로서 무량한 功德修行(발보리심, 예배, 공양, 보살행)을 닦은 보답, 말 바꾸면 여래와의 삼밀가지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서 얻어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바중생들을 제도하고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래와 一切가 되는 묘문인 삼밀가지로 장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지를 생명을 잉태하는 종자에 비유함과 동시, 우주법계가 각 존재들의 상호가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加持法界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만일 모든 수행인이 유가삼매에 깊이 들어가 스스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聽聞한다면 이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正說의 때와 다름이 없는 것이기에, 이 날을 일러 부처님과 加持한 날이라 하는 것이다.⁷²⁾

足 能得如是如來智寶之所集成 祕密莊嚴法界樓觀 於一切實報所生最爲第一”(『大正藏』 39, p.580c)

70) “諸佛實相眞言實相衆生實相 皆是毘富羅法界 以此更相加持故 名爲法界加持 復次如男女交會因緣 種子託於胎藏而不失壞 卽是相加持義”(『大正藏』 39, p.674b)

71) 무량한 功德修行(발보리심, 예배, 공양, 보살행)을 닦은 報答으로 現一切色身三昧를 증득하여 사바에 몸을 나투어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大正藏』 9, p.56b)

72) “若深入瑜伽境界三昧時 自當了了聽聞 如正說時無異 是以故名爲佛加持日也”(『大正藏』 39, p.646a)

라 하여, 누구든지 유가삼매에 들어 부처님으로부터 가지를 받아 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곧 “8개의 結印과 眞言과 本尊으로 加持된 바 되었기에 이들 諸尊들이 자연이 道場에 내려와 正行의 願行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⁷³⁾라는 『대일경소』의 말 씀처럼, 모든 것은 三密加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말 바꾸면 일체 여래의 가지를 받고 신변출현한 37尊이 또 다시 가지에 의해 우리들 중생을 제도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본구의 자성청정심을 여실지견하여 비로자나불과 삼밀가지하고 나아가 이를 확장시켜 이웃들과 상호 가지한다면 이웃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닌 본래의 자성청정심으로 歸還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래↔보살↔나↔중생으로 이어지는 加持의 관계성, 곧 敎化하고 제도되는 一連의 과정을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소위 <三密加持 循環에 의한 衆生濟度方程式>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곧 衆生이 어느 한 존격과 삼밀문으로서 교감을 가지게 되면 그 중생 또한 교감을 함께한 존격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 곧 어느 한 수행자가 어떤 존격과 삼밀가지하게 되면 그 尊格은 이미 비로자나불로부터 가지유출되어 비로자나불과 동격이 되었으므로, 그 존격과 삼밀가지의 교감을 나눈 수행자 또한 궁극적으로는 비로자나불과 동격이 된다는 공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삼밀가지의 순환에 의해 건설되어지는 불국토가 다름 아닌 三密로 莊嚴된 세계인 密嚴國土가 될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밀교의 加持神變의 개념은 그 뿌리(근원)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 부파불교의 논서인 『異部宗輪論』에는 大衆部の 불신론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여래의 위신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73) “以此八印及眞言本尊之所加持故 彼諸尊等自然降赴道場 滿彼正行之願事也”(『大正藏』 39, p.750b)

여래의 색신과 위력과 수량은 끝이 없다. 그 까닭은 여래께서는 일찰나에 般若와 加持相應하시어 일체법을 요지하시기 때문인 것으로, 때문에 하시는 말씀 모두가 轉法輪이 되는 것이다.⁷⁴⁾

라 하여, 여래가 신변의 위신력을 지니게 된 까닭을 찰나찰나에 반야와 유가(상응)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지도론』의 “반야바라밀을 설하시기 위해 종종 신변을 현출하시는 것이다”의 말씀이나 『반야심경』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연고로 열반을 얻고, 삼세제불 역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무상정등정각을 얻은 것이다”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새삼 대승불교의 키워드인 반야바라밀다의 중요성을 느낌과 동시, 지금껏 살펴본 것과 같은 고도의 밀교적 발상으로 발전·전개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 곧 여래의 신변은 중생을 사랑하시는 여래의 끝없는 대비방편의 일환으로 시설된 것으로, 그 신변의 體性은 普賢大菩提心이라는 金剛性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신변은 여래와의 가지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금강계만다라의 구성원이 된 37尊들도 모두가 여래와의 가지를 통해 출생한 존격들이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가 加持身으로서 법신 비로자나불과 동등한 금강성의 소유자이며, 따라서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유가삼매에 들어가 삼밀묘문을 행한다면 그 날이 곧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加持를 받는 날이 되어 법신 비로자나불과 똑같은 智身이 된다는 밀교적 발상으로 발전·전개되는 기반이 되었음도 알게 되었다.

74) “如來色身實無邊際 如來威力亦無邊際 諸佛壽量亦無邊際 諸如來語皆轉法輪 一剎羅心了知一切法 何以故一剎羅心相應般若故”(『大正藏』 49, p.15b-c)

V. 결어

이상 ‘卽身成佛과 중생제도의 원리로서의 三摩地와 三密加持神變’이란 논제를 통해, 三密瑜伽行의 구체적 내용인 三摩地와 瑜伽(加持)와 神變이 상호 어떠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또 금강계만다라의 핵심 멤버인 37尊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다라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말하자면 그들의 출현(생)이 이들 三摩地·瑜伽(加持)·神變과 어떤 콘셉 속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또 우주의 주인으로 만생명의 에너지 근원으로 밀교의 敎主되시는 法界體性智의 당체인 法身大日如來의 정체는 무엇이며? 또 衆生成佛의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성불하는 것인지를 밀교의 兩部大經으로 瑜伽經典인 『大日經』·『金剛頂經』과 이들과 관계되는 經軌들, 그리고 이들의 도상적 표현인 金剛界曼荼羅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三摩地와 瑜伽(加持)와 神變이란 개념은 卽身成佛을 주창하는 밀교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法身毘盧遮那佛과 중생을 비롯한 만생명을 연결해주는 架橋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강계만다라의 37尊 구성원 모두는 이들과의 관계를 거쳐 탄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곧 37尊은 한결같이 대비자 여래께서 중생과의 연결을 위해 시설해 놓으신 三摩地와 瑜伽(加持).神變을 통해 出生된 如來의 分身들로서, 이들을 加持身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들이 모두 加持를 통해 탄생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들 개념들이 여래와 중생을 연결해주는 삼밀유가행의 구체적 내용인 것을 알게 되었다. 곧 중생을 사랑하시는 여래의 대비심과 본향인 여래에게 회귀하려는 중생의 간절한 열망인 菩提心, 이 둘을 하나되게 하는 架橋로서의 妙門이 다름 아닌 如來와 衆生の 身口意 三密의 相互瑜伽行인 三密瑜伽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成佛神變加持經』과 『~瑜伽三昧~經』이라는 밀교의 兩部大經의 經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밀교사상의 키워드는 三昧, 加持, 瑜伽, 神變, 그리고 成佛이다. 말하자면 밀교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기초로 해서 卽身成佛이라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한편 『大日經』에는 <三力加持 법문>, 곧 ‘以我功德力 如來加持力 及以法界力 普供養而住’란 말씀이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 그 첫째가 각 개인이 짓는 功德力, 둘째가 우주법신인 진리와의 계합인 加持力, 셋째가 함께 사는 法界衆生들로부터 받는 힘이라는 것이다. 곧 나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절대자가 있어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내가 우주 진리 내지 함께 사는 이웃들에 대해 얼마나 잘 계합하며 공덕을 짓는지가 관건이라는 내용으로서, 加持란 개념은 제 1장에서 거론했던 『法華經』의 32應화와 功德修行的 결과 現一切色身三昧을 얻은 妙音菩薩의 이야기, 淨土經典의 往生原理인 如來의 本願(pūrva-pranidhāna)과 行者の 功德修行(發菩提心・修行)의 관계,⁷⁵⁾ 『華嚴經』에서의 법신불의 願行과 그 결과로서의 蓮華藏世界の 建設過程⁷⁶⁾ 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생세계의 삶의 터전인 緣起法界의 근간을 이루는 키워드로서, 밀교경전을 비롯한 『무량수경』이나 『화엄경』과 『법화경』 등의 대승경전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기본 개념이자, 正等覺의 成就와 神變을 이루게 하는 메카니즘으로서, 모든 莊嚴(淨土, 蓮華, 密嚴)의 근간이 됨도 알 수 있었다. 곧 成佛이나 往生은 三業莊嚴이 三密莊嚴으로, 곧 衆生世界가 佛世界, 衆生莊嚴이 佛莊嚴으로 神變했다는 의미, 말하자면 나의 三業이 如來의 三密로 거듭나

75) 『無量壽經』(『大正藏』 12, p.268a-b), “設我得佛 十方衆生發菩提心 修諸功德 至心發願 欲生我國 臨壽終時 假令若不現其人前者不取正覺”

76) “當知 此蓮花藏世界海是毘盧遮那佛本修菩薩行時 於阿僧祇世界微塵數劫之所嚴淨 於一一劫恭敬供養世界微塵等如來 於一一佛所淨修世界海微塵數願行”(『大正藏』 9, p.412a)

莊嚴되었다는 뜻, 곧 <三密加持>나 <入我我入>이 의미하는 것처럼, 중생의 三業과 여래의 三密이 상호 瑜伽加持하고 相即相入해서, 나와 여래가 서로 주거나 받아 그 결과로 나의 三業이 본래의 如來의 三密에 相即相入하여 相應한 境地, 곧 내가 여래와 <二而一>이 된 경지를 의미한다. 法身佛의 진정한 가르침을 설하는 밀교의 가르침은 중생들로 하여금 현교의 가르침처럼 化身에 歸依케 하는 것이 아니라 衆生本來의 모습인 自性清淨身으로 歸依케 하는 妙道の 가르침이다. 곧 法身과 化身(加持身)과 衆生の 相互出生과 相互供養 관계를 보이고 있는 『금강정경』이나 三密平等加持의 三句法門과 나와 여래와 중생의 三力加持法門을 설하는 『대일경』이 보여 주듯, 法身佛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化身(加持身)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생들로 하여금 本人의 自性 속에 本具되어 있는 佛性, 곧 自性法身に 還元케 하기 위한 것, 말 바꾸면 佛의 궁극적 목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化身佛에 귀의케 하는 祈福의 信仰이 아니라, 중생들 스스로 자신의 本來面目을 깨달아 이를 밝히고 밝혀 成佛케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삼밀가지의 원리가 사바중생 모두에 순환되어 그들의 本鄉인 清淨三密에 歸還되는 것이 다름 아닌 一切衆生の 成佛이자 三密로 장엄된 불국토 密嚴世界の 건설인 것이다.⁷⁷⁾ 그리고 이렇게 하는 方便法 中 最高의 修行法으로 개발된 것이 三密瑜伽를 근간으로 하는 阿字觀과 月輪觀과 五相成身觀 入曼荼羅行 등의 妙道を 설하는 밀교, 말하자면 佛과 衆生の 간격에서 오는 一抹의 無明을 卽時(身)에 그것도 완전히 除去케 하는 최고의 방편수행법이 밀교의 三摩地法인 三密瑜伽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⁸⁾

77) 『圓覺經』(『大正藏』 17, p.914c), “善男子 一切實相性清淨故一身清淨 一身清淨故多身清淨 多身清淨故如是乃至十方衆生圓覺清淨”

78) 『金剛頂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에는 밀교를 일러 ‘자각성지돈증법문으로 만다라단에 들어가 일체 여래의 교칙인 삼마지문을 수여받는 가르침’이라 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제류

『牟梨曼荼羅呪經』(T.1007)	『大正藏』 20
『陀羅尼集經』(T.901)	『大正藏』 18
『大日經疏』(T.1797)	『大正藏』 39
『菩提心論』(T.1665)	『大正藏』 32
『法華經』(T.262)	『大正藏』 9
『大日經』(T.848)	『大正藏』 18
『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教王經』(T.865)	『大正藏』 18
『佛說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T.882)	『大正藏』 18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T.866)	『大正藏』 18
『略述金剛頂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T.870)	『大正藏』 18
『金剛頂瑜伽略述三十七尊心要』(T.871)	『大正藏』 18
『金剛頂蓮華部心念誦儀軌』(T.873)	『大正藏』 18
『諸佛經軌眞實攝經』(T.868)	『大正藏』 18
『金剛頂瑜伽三十七尊禮』(T.879)	『大正藏』 18
『金剛頂瑜伽三十七尊出生義』(T.872)	『大正藏』 18
『金剛頂瑜伽金剛薩埵五秘密修行念誦儀軌』(T.1125)	『大正藏』 20
『五秘密儀軌』(T.1125)	『大正藏』 20
『金剛頂經開題』(T.2221)	『大正藏』 61
『仁王般若陀羅尼釋』(T.996)	『大正藏』 19
『眞言名目』(T.2449)	『大正藏』 77
『大日經開題』	『홍법전서』 1
『秘藏記』	『홍법전서』 2
『金剛峰樓閣瑜伽瑜祇經』(T.867)	『大正藏』 18
『大智度論』(T.1509)	『大正藏』 25
『菩薩瓔珞經』(T.656)	『大正藏』 16
『大寶積經』(T.310)	『大正藏』 11

“夫眞言陀羅尼宗者 是一切如來祕奧之教 自覺聖智頓證法門 亦是菩薩 具受淨戒無量威儀 入一切如來海會壇 受菩薩職位 超過三界 受佛教敕三摩地門”(『大正藏』 18, p. 287c)

『華嚴經』(T.275)

『大正藏』 9

『無量壽經』(T.360)

『大正藏』 12

『圓覺經』(T.842)

『大正藏』 17

출판물

賴富本宏, 1997, 『大日經入門 -慈悲の マンダラ世界- 』, 大法輪閣

立川武藏, 1988, 『(現代新書) ヨーガの哲學』, 講談社

松長有慶, 1985, 『密教 コスモスとマンダラ』

金剛秀友, 1975, 『密教の哲學』

梅尾祥雲, 1932, 『曼荼羅乃研究』, 高野山大學出版部

[Abstract]

Samādhi, Three Mysterious Practice and Transformation as the Principle of Immediately Becoming the Buddha and Saving Sentient Beings

Ven. Jong-seok(Chun, Dong-hyuk)

Esoteric Buddhism has two main sūtras: 『大日經』(Skt.: *Mahāvairocanaśambodhi-vikrmitādhīṣṭhāna-vaipulyasūtra-indrarāja-nāma-dharma-ṣyāna*), 『金剛頂經』(Skt.: *Sarva-tathāgata-tattva-saṃgraha-nāma-mahāyāna-sūtram*).

Since we know the titled names of the sūtras, the keywords in Esoteric Buddhism are Samādhi, Practice (yoga), and Mysterious Transformation. Esoteric Buddhism, based on these keywords, it has been argued, has a doctrine that our current physical bodies received from our parents can be immediately enlightened in this life. This is called “the Idea of Immediate Body Accomplishment.”

This article starts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three concepts: the

Mysteries transformation, Practice which is integrated into the Samādhi, and analyzing the specific contents and their relationships. Since I noted the importance of the three practices, in this paper I explore the specific contents of those, such as Samādhi,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ractices and mysterious transformation. In addition, this paper speculates how the thirty seven heroes, the main persons in the maṇḍala of the diamond realm, could be members of maṇḍala. In other words, what is the reason the appearance of those heroes can be related with the main key words of Esoteric Buddhism? If they have a certain relationship then what is the specific content? What is the identity of Mahā-Dharma-kāya-Tathāgata? Who is the foundation and basic material source for all energy, and also who is regarded as the foundation of Esoteric Buddhism? In addition, can we, as sentient beings, be reborn as the Buddha? If so, what is the logical foundation and what is the process for the enlightenment? I explore these questions and suggest the answers based on two foundational scriptures and the somewhat related maṇḍala of diamonds.

As a result, the concepts of Samādhi and mysterious transformation are the basis for the Esoteric Buddhism that advocates the notion that physical bodies can immediately achieve Buddhahood. Moreover, these concepts are a bridge to connect Vairocana, as a dharma-kāya and sentient beings. Thirty-seven Buddhas composed as crucial members of maṇḍala of diamonds are all related with these concepts. In other words, these thirty-seven Buddhas are born through these processes and are avatars of Tathāgata, who always loves and has great compassion for sentient beings. It is called the body of adding keep because all processes are accomplished through Samādhi, Practices, and Mysterious Transformation.

Sramanas are the bridge between two concepts, between the great compassion by Tathāgata who always loves sentient beings, and The Bodhisattva's mind by sentient beings who want to be returned to Tathāgata. Moreover, those are the result that Tathāgata and sentient beings are interrelated in terms of three practices, the practices based on the physical, verbal, and intentional actions.

The importance of practices can be found in the stories of other Buddhist texts, such as The Sūtra on the White Lotus of the Sublime Dharma (Skt.: *Saddharma Puṇḍrika Sūtra*), The *Avataṃsaka Sūtra* (Skt.: *Mahāvaiṣṭhīya Buddhāvataṃsaka Sūtra*), and some of the texts of Pure Land Buddhism expressed for the principle motivation of Tathāgata (purva-pranidhāna) and the merits of practitioners' efforts.

As we know from the above analysis, the texts of Esoteric Buddhism and Mahāyāna Buddhism have shared some foundational concepts, which are also crucial for achieving enlightenment.

Key Words: Samādhi, Practice, Three Mysterious Practices, Mysterious Transformation, Immediate Body Accomplishment, True Knowledge of Self-Mind, Three Dharma Gates of Three Phrases, Phrases of Three Equals Stages, Mediation of White Moon, Esoteric Buddhism, Maṇḍala of Daimond Realm.

종석(전동혁)은 일본 대정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동대학에서 한국밀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서 불교학연구원과 승가학연구원의 왕원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밀교학개론』, 『불교학개론』, 『다라니지송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 「당조의 순밀성행과 입당 신라밀교승들의 사상」, 「밀교경

전의 신라·고려 전래고』, 『석문의범으로부터 본 한국불교의례와 밀교적 성향』 등이 있다.

[2011.10.31. 투고; 2011.12.14. 수정; 2011.12.18. 채택]